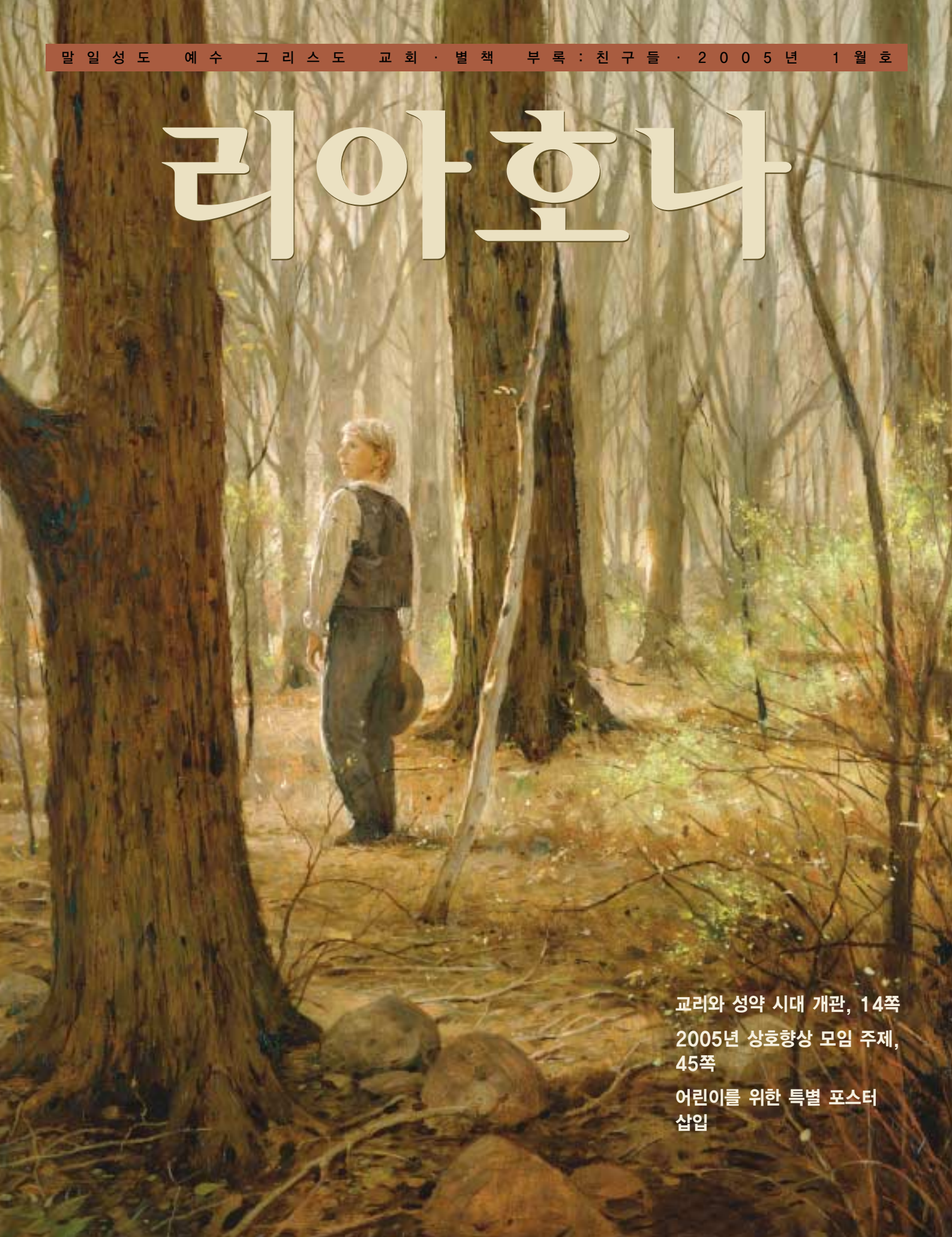


리아호나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14쪽
2005년 상호향상 모임 주제,
45쪽
어린이를 위한 특별 포스터
삽입



“이 사업은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지극히 놀라운
나타내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훌륭한 일들은
그 놀라운 방문의 열매로서, 그에 대한
간증은 많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2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그림: 월터 레인



친구들 표지
삽화: 스티브 크롭

불빛, 친10쪽 참조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8 복음 고전: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1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1:1~64편
- 18 데이비드 오 맥케이: 신앙의 사절 웨이드 머독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기뻐함
- 26 잃었다가 다시 힘겹게 찾은 사랑 이름을 밝히지 않음
- 30 가족을 강화함: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38 말일성도의 소리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
자극히 작은 일 새년 밴더스플 왓슨
스키너 형제와 함께한 가정 복음 교육 케빈 프로파스코
- 42 집사 정원화: 감리 감독단과의 인터뷰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13 포스터: 믿으라
- 32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마빈 케이 가드너
- 44 집사가 됨 로리 리브시
- 45 200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크고 놀라운 일"
- 46 제가요? 축복을 주라고요? 브래드 라슨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침례를 통해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친4 기도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부모님의 신앙
- 친8 함께 나누는 시간: 행복의 계획 마가렛 리퍼스
- 친10 불빛 보 피더슨
- 친13 아름다운 세상 : 계획의 일부
- 친14 친구 사귀기: 과테말라 꼬말라파의 하이로 엘리 호곰

삽입: 어린이용

함께 나누는 시간 포스터: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잃었다가 다시 힘겹게 찾은 사랑", 26쪽 참조





그림: 데이비드 린드슬리, 하늘의 문

1835년 가을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 조셉 영과 브리감 영(맨 위)이 말일의 최초의 성전인 커틀랜드 성전에서 창문을 설치하는 것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운데)가 돕고 있다. 올리버 카우드리(왼쪽)와 시드니 리그돈(오른쪽)도 함께 도왔다.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위스틴, 리처드 지 스키프,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더블류 롤프 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샤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텔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케이 오데커, 애덤 시 홀슨, 유디스 엠 팔라, 비비안 홀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털, 킴벌리 엘,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스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랄프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66호, 제 42권, 제 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안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및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05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8쪽: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의 성격에 관해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밝힌 목록을 만든다.

두 목록을 비교한다. 이 두 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기사에 언급된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었던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30쪽: 이 기사에 있는 네 부분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가면서 설명하도록 권유한다. 이 기사에 있는 진리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 또는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39장)와 같은 찬송가 가사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본다.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32쪽:

베네수엘라의 청소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 몇 가지를 연기해 볼 수 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여러분의 것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200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크고

놀라운 일”, 45쪽: 200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관한 본부 청년 및 청년 회장단의 말씀을 읽는다. 이 주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제언을 청소년들에게 부탁한다.

“침례를 통해 거듭남”, 친2쪽: 가족

가운데 일부를 지명하여 아티아티의 이야기를 실연해 본다.

아티아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단락을 소리내어 읽고 침례의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부모님의 신앙”, 친6쪽: 해설자, 어머니,

아버지, 데이비드가 말한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적는다. 가족에게 이야기를 연기해 보도록 지명한다. 친6쪽과 친7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 준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더 큰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범세계적인 교회, 32,
가르침, 8	친14
가정 복음 교육, 7, 38,	봉사, 38, 42
46	사랑(자애), 26
가족, 30, 38, 친6	상호 향상 모임, 45
간증, 45	선택의지, 30
개종, 38	신권, 42, 44, 46, 친14
개척자, 2	신앙, 친6
결혼, 26	예수 그리스도, 26, 친8
경전 공부, 8	요셉 스미스, 2, 13, 14,
교리와 성약, 8, 14	25, 45
교회 역사, 2, 14	지도력(리더십), 18, 42
구원의 계획, 30, 친8,	집사, 42, 44
친13	창조, 30
기도, 13, 46, 친4, 친10	첫 번째 시험, 2, 13
기적, 친2, 친10	청소년, 32, 45
맥케이, 데이비드 오, 18,	초등학교, 친8
친6	침례, 친2
모범, 2, 32, 친6	표준, 2, 32
물몬경, 8	활동 촉진, 32, 38
방문 교육, 25, 38	회복, 25
배도, 25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의 조상들이 말했던 시대가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그토록 많은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활력 넘친 놀라운 사업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인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결코 이 성장에 대해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시현의 열매

이 사업은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지극히 놀라운 나타내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훌륭한 일들은 그 놀라운 방문의 열매로서, 그에 대한 간증은 많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사건에 관한 예언자의 묘사가 참되다는 것,

즉 예언자가 묘사했던 것처럼 그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와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그에 관해 영으로 얻은 저의 간증을 더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요셉이 예언자였으며 그를 도구로 삼아 이루어진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요셉 스미스의 사업과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에 관해 예언자의 측근 중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만 갑니다. 요셉이 순교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았던 184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렛 장로가 시처럼 아름다운 다음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했으니, 우리는 그 경계를 넓힐 것입니다.

“그가 충만한 복음을 회복했으니,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

“그가 영광스러운 날의 새벽을 밝혔으니, 우리는 그 찬란한 광채가 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자였지만 천 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소수이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돌을 깨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토록 큰 대가를 치렀을진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비난과 같은 작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 돌이 큰 산이 되게 하고 온 땅을 채우게 할 것입니다.”¹

우리는 그 꿈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에 우리가 진실하고 충실하여 이 왕국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슬픔과 좌절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사적이며 궤변적인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

사업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이 사업에 반대하는 적들의 노력 또한 강해질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온유함과 진지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 체제 때문에 다투지 말고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계명으로 전합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반면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신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언으로 공포합니다.”²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을 위해 오늘 그 말씀의 일부를 주제로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언자께서 주신 이 권고, 즉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확고한 진로를 추구함

우리는 흔들리는 가치관과 변화하는 표준,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허황된 프로그램이 물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부나 공중 도덕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성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여러 교회, 심지어는 인간의 궤변에 의해 그릇된 길로 인도된 몇몇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도 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힘이 되어 온 전통들을 내던지고는,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전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글에서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했으니, 우리는 그 경계를 넓힐 것입니다. 그가 충만한 복음을 회복했으니,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있었던 엑스포 70 세계 무역 박람회의 교회 전시관 헌납 연설에서 일본 정부 관리가 주장한 도덕적인 힘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박람회에 참여한 우리 교회를 열렬히 칭찬하고는, 자국민들의 생활에 종교적 영향력이 약해져 가는 것과 표준 및 이상이 저하돼 가는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폴리처상을 수상한 역사가 바바라 더블류 터크맨 여사의 고무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말할까, 우리에게는 소위 ‘피리 부는 사나이’들이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열망합니다. 그들은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수집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명백하게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차분히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며 저것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 지침과 맞는 것이며 저것은 지침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탁월하고 저것은 쓸모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표준에 대해 거론하기를 꺼려 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인 지도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 사회가 상속 받고 있는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표준의 부재로,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너무도 큰 우리의 불안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허약한 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문제는 표준이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많은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주장하기에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 표준에 따라 살고 그것을 수호하는 데 확신이 없습니다. 표준을 보여 주어야 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 도덕, 행동 또는 심미적인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데에서 널리 퍼져 있는 파괴적인 강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³

일반적으로 표준이 변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가 그와 같이 방황한다면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검증을 거친 효율적이고 확실한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님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표준들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유효성이 줄어들거나 적용의 미덕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간교한 논리가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그럴 듯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지혜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에 위스콘신 밀워키 북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축복사로 지혜롭게 봉사했던 한스 킨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를 얻고자 하는 해의 왕국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순종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점입니다. 순종은 화평을 가져다주고 성장을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개인에게 이루어지며, 그 사람의 훌륭한 모범은 그가 속한 단체에 존경을 가져다줍니다.

다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성하게 주어진 표준을 지킨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진로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모범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업의 미덕을 위해 제시할 가장 효과적인 논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많은 것들에 대해 권고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교회의 어떤 회원도 그것을 행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덕성, 이웃 사랑, 율법에 대한 순종, 국가에 대한 충성, 안식일 준수, 금주 및 금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침, 가난한 자를 보살핌, 가정과 가족의 발전, 복음을 전하는 일 등에 관해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한 지침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든 조금이라도 언쟁하거나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종교를 실천해 나감에 있어 확고한 진로를 추구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 대업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하고 과소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을 침해하려는 듯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억지로 변경시키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바라 터크맨이 제시한 확고한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며 저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 지침이며 저것은 아닙니다.”

실망되고 심히 걱정스러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

우리는 흔들리는 가치관과

변화되는 표준,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허황된
프로그램이 몰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개척자의 모험

이 교회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조모인 메리 고블 페이의 경험담을 읽을 때마다 그 점을 되새기게 됩니다. 13세 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몇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영국 남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브라이튼에서 보낸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곳에는 서섹스 주의 부드러운 푸른 언덕이 아래쪽으로 바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그녀의 가족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이 그것이 참되다고 속삭였기 때문에 그들의 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친척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비웃고 그들에게 반대하도록 부추기는 폭도들까지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침례를 받아 물문으로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용기, 즉 도덕적 용기로 묘사되는 정말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족은 리버풀로 여행했고, 그 곳에서 약 90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라이즌호에 탑승했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그들은 “안녕, 나의 조국여, 안녕”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제트 비행기로 여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주 동안 항해한 끝에 보스턴에 도착하여 손수레 부대와의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증기 기차를 타고 다시 아이오와시티로 여행했습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황소 두 쌍, 암소 한 쌍, 마차, 그리고 천막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손수레 부대와 여행하며 돕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 곳 아이오와시티에서 그들의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두 살도 채 안 된 막내 동생이 혹독한 날씨로 인해 동사한 뒤 가족이 다시는 찾아올 수도 없는 황량한 곳에 묻혔습니다.

이제 13세 된 소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남긴 기록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5에서 25 마일[25~40킬로미터]을 여행하여 ... 플레이트 강가에 도착했다. ... 그 날 우리는 여러 손수레 부대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강에는 많은 얼음덩이가 떠내려 가고 있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 우리는 야영지로 돌아와 기도를 드리고는 ...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불렀다. [그 날 밤] 어머니가 왜 우셨는지 궁금했다. ... 다음날 아침 여동생이 태어났다. 9월 23일이었다. 우리는 에디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에디스는 그 후 6주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 [그 아기는] 스위트워터 강의 마지막 건널목 지점에 묻혔다.

“우리는 폭설 속을 걸었다. 나는 눈 속에서 길을 잃었다.] 발과 다리가 얼었다. [사람들이] 눈으로 내 다리를 문질렀다. 그들은 내 발을 물 통에 담갔다. 말할 수 없이 아팠다. ...

“데블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지독히 추웠다. 우리는 그 곳에서 많은 물건을 버렸다.

우리가 확고한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모범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업의 미덕을 위해 제시할 가장 효과적인 논거가 될 것입니다.



... [그 날 밤] 오빠 제임스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오빠는 죽어 있었다. ...

“내 발은 쪼뽏 열었다. 남동생 에드윈과 언니 캐롤린의 발도 열었다. 어디를 가나 눈 뿐이었다. [어디나 눈이었고 차디찬 와이오밍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천막용 말뚝을 박을 수가 없었다. ...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서는 ... 브리감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들과 마차를 보냈다고 말해 주었다. ... 우리는 노래를 불렀으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다. ...

“어머니는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 어머니는 어느 계곡에서 돌아가셨다. ... 연세가 43세였다. ...

“우리는 1856년 12월 11일 밤 9시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살아 남은 4명 중에서 세 명이 동상에 걸렸다. 어머니의 시신은 수레 속에 있었다. ...

“다음날 이른 아침 ... 브리감 영이 ... 왔다. ... 어머니를 잃고 발은 쪼뽏 얼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자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

“의사가 나의 발가락을 절단했다. ... 그러는 동안에 자매님들이 어머니를 무덤에 안치시키기 위해 수의를 입혔다. ... 발가락 치료를 마치자 그들은 ...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여 주기 위해 우리를 옮겨 주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냈는지! 그 날 오후 어머니의 시신이 매장되었다. ...

“[나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한 말을 가끔 생각했다.] ‘폴리야, 이 엄마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릴 때 시온으로 가고 싶단다. 이 엄마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⁴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토록 큰 대가를 치렀을진대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비판을 받는 어떤 작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놀랄 일이겠습니까?

논쟁이나 언쟁을 피하고, 감정을 상하지 않고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이겨냅시다. 악을 선으로 극복합시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며, 무수한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진리의 메시지에 응답할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세력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이요, 저의 간증입니다. ■

주

1. "Proclamation", *Millennial Star*, 1845년 3월, 151~152쪽.
2. *History of the Church*, 2:431
3. "The Missing Element—Moral Courage", *McCall's*, 1967년 6월, 28쪽.
4. *A Pioneer Story: Mary Goble Pay, 1856*,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4, 10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가족 구성원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예언의 첫 번째 문장을 암기하도록 돕는다. (“최선의 방어” 제목 아래 둘째 단락 참조) 가족 구성원들이 암기했을 때 칭찬을 하거나 조그만 상을 줄 수 있다.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는 것의 의미에 관해 힝클리 대관장이 언급한 제언을 열거하고 토론한다.

2. 바바라 더블류 터크맨의 글을 인용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도덕적인 힘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소제목 ‘확고한 진로를 추구함’의 넷째 단락 참조)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덕적인 힘을 요구하는 상황을 연거푸 보도록 권유한다. 이것은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족들이 온유해질 수 있고 또한 도덕적인 용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예언에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메리 고블 페이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힝클리 대관장이 결론으로 던진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예언자 요셉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더욱 충실히 생활할 수 있는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

제13대 교회 대관장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 주 휘트니에서 사라 던클리위와 조지 태프트 벤슨 이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플로라 스미스 아뮤센과 1926년 9월 10일에 결혼했다. 44세이던 1943년 10월 7일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었다. 벤슨 장로는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미합중국 농무장관으로 재직했다. 1973년 12월 30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고 성임되었다. 1985년 11월 10일, 86세에 제13대 대관장이 되었으며 8년 이상을 그 부름에서 봉사했다. 벤슨 대관장은 1994년 5월 30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했다. 경전 공부의 위대한 주창자였던 그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관해 간증했다.

교리와 성약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회복 사업과 몰몬경 사이를 묶어 주는 고리입니다.

저는 성스러운 두 권의 현대 경전, 즉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고 준비시키기 위해 계시하신 것으로서, 같은 목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경전들이 “황폐한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세상에 나오기 위해 우리는 “십구 세기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피”(교리와 성약 135:6) 즉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의 피를 그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두 권의 책에는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몰몬경의 표제지,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 대한 주님의 서문인 교리와 성약 1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다른 현대 계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서로를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를 믿고 다른 하나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몬경은 현대 경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몰몬경은 그 경전들이 성경의 “참됨을 증거”하며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들” 알려주는 “또 다른 책”이자 “마지막 기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3:39~40 참조)

몰몬경에 대한 증인들을 제외하면,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의 참됨에 대해 주님께에서 받은, 가장 커다란 외적인 증언이자 증거입니다. 적어도 교리와 성약 열세 편에서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지식과 거룩한 증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 3; 5; 8; 10~11; 17~18; 20; 27; 42; 84; 135편 참조)

교리와 성약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회복 사업과 몰몬경 사이를 묶어 주는 교리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성전 사업, 영원한 가족, 영광의 등급, 교회 조직 등을 비롯한

회복의 위대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7~38)

몰몬경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옵니다. 교리와 성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왕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온 땅 위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절)로 데려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말일의 계시가 있는 “관석”입니다. 주님은 종석과 관석 모두에 그분의 승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몰몬경의 준비와 보존 그리고 그 출판은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말씀을 입증해 줍니다. “주는 태초로부터 모든 일을 아시었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길을 마련해 두셨나니, 보라 주님은 모든 그의 말씀을 이루실 권세를 가지셨느니라.”(니파이일서 9:6)

우리는 비록 외적인 증거들이 많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또는 진실한 기록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던 적도 결코 없었으며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경의 기원, 준비, 번역 및 참됨의 증명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져 왔으며 주님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로나이서 10장, 세 사람 및 여덟 사람의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교리와 성약의 여러 편에서 볼 수 있듯이 몰몬경을 증명하는 그분만의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신을 통해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간증을 몰몬경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도 성신을 통해 그것의 참됨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몰몬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진대”(니파이이서 33:10) 몰몬경을 믿게 될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칠 때 경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엘마는 내게 명하신 이의 말씀을 빌어 너희에게 명하노니…”(엘마서 5:61)라고 엘마는 말했습니다.

몰몬경에 있는 말씀과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방법이 우리의 이해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또 복음 원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몰몬경의 말씀에 있는 권세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 때까지 그들이 겪은 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나 그 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 이로써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엘마서 31:5)

엘마는 교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조상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습니다. “보라 주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으며, 저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으며 저들이 주님[하나님]께로 깨어 났으니, 보라 저들이 암흑 가운데 있었으나 저들의 영혼이 영원하신 말씀의 빛을 받았고.”(엘마서 5:7)

우리는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을 깨워 “주님께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영원한 말씀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이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권위를 가지고 그 처럼 완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듯 우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앰올레크의 말을 빌리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위대한 계획”(엘마서 34:9)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 몰몬경과 다른 회복된 경전들에 있는 메시지와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계획을 가르치는 많은 예가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론의 선교 사업에 관해 물몬이 요약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에 아론은 왕이 자기 말을 믿으리라는 것을 알아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왕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범법으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또한 아론은 왕에게 아담의 창조에 관한 경전으로부터 인간의 타락의 경위, 그들의 육욕적인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마련된 구속의 법(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신앙과 회개 등을 바탕으로 저들의 죄를 대속하셨으며”(앨마서 22:12~14)

물몬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구속의 계획이 반드시 아담의 타락에 관한 기사로 시작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졌느니라.”(물몬서 9:12)

사람이 배가 고파야만 비로소 음식을 갈구하듯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타락의 교리와 그것이 전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그리고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책도 이 핵심적인 교리를 물몬경만큼 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일과 또한 우리가 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을 주의깊게 살펴보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위대한 계획”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아담 및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타락에서의 구속에 관해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앨마가 앨마서 5장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던진 결정적인 질문들을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죄를 이해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습니까? 깻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타락으로부터의 구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앨마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속의 사랑을 노래”(앨마서 5:26)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르치는 근원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그것은 경전이며, 특별히 물몬경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다른 현대 계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계시들은 물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영의 속삭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앨마는 “그 계시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하여진 것

물몬

문경과 교리와
성약이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권위를 가지고
그처럼 완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듯 우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르친 후에는 그것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모사이야서 18:19)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여행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며, 예언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전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2:9)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르친 후에 그것의 참됨에 대해 개인적으로 간증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놀라운 변화”를 마음으로 경험할 필요성에 관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엘마는 다음과 같은 간증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인봉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니라.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이는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앨마서 5:45~46)

후에 엠올레크는 엘마의 선교 동반자로 합세했습니다. 엘마가 조램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 엠올레크는 동반자의 메시지를 자신의 이러한 간증으로 인봉했습니다.

“보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사실임을 내가 너희에게 간증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법을 대신하시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에게 강림하실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라.”(앨마서 34:8)

교리와 성약에 붙이는 그분의 서문에서 주님은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리와 성약 1:4)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책임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아브라함서 2:9)을 지니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요셉 스미스에게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이제, 이 집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요셉 스미스는 그분의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됨을 세상에 확신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종교의 종석인 경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지키면 다른 어떤 책보다 그들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줄 가장 정확한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몰몬경입니다.(몰몬경 소개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경전을 사용하되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오도록 그분께서 마련하신 도구, 즉 우리 종교의 종석인 몰몬경과 그 자매편이자 관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데려다 주는 도구인 교리와 성약을 함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

저는 여러분이 복음 주제에 관한 현대 계시를 좀더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배가되고 또한 여러분이 시온의 대업을 진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임지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집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몰몬경으로 세상을 뒤덮고, 진리를 갈망하거나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세상에서 모으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갖도록 축복합니다. ■

198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믿으라

요셉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다.
(야고보서 1:5~6)



그림: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편, © 그레고 울슨, 복제 불허

■ **서기 34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 사도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인도했다.

■ **100~200년** 대베도, 신권 권능이 지상에서 겨두어졌다.(니파이일서 13:1~11 참조)

■ **1620~1750년**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찾는 유럽의 개신교 신자들을 북미대륙으로 인도하셨다.(니파이일서 13:13~16 참조)



■ **1450년** 구텐베르크가 책의 보급을 용이하게 해주는 인쇄 활자를 만들었다.

■ **1500~1600년** 영어 및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의 새 번역본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니파이일서 13:20~23 참조)

■ **1492년** 하나님의 영이 콜럼버스를 미대륙으로 인도하셨다.(니파이일서 13:12 참조)

■ **1775~1783년** 미국 독립 선언문과 독립 전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생 국가가 세워졌다.(니파이일서 13:17~19 참조)

■ **300~1300년** 기독교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 **1517년** 유럽에서 마틴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가들이 천주교에 반대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 **1787~1791년** 미국 헌법이 종교적 자유를 기본 권리로 확립했다.

일부 일자는 대략적인 날짜임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1: 1~64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교리와 성약 각 편의 머리글과 *History of the Church(교회사)* 참조.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들

1805년 12월 요셉 스미스 이세가 버몬트 주 사본에서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사이에 태어났다.(요셉 스미스서 2:3 참조)



1816년 스미스 가족이 버몬트 주에서 뉴욕 주 팔마이라 지역으로 이사했다.

1823년 9월 천사 모로나이가 처음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부근 언덕에 묻혀있는 금판에 관해 말했다. 모로나이는 그 이후로도 방문을 계속 했다.(요셉 스미스서 2:29~54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2편 참조)

1820년 봄 첫 번째 시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 일세의 농장 부근에 있는 숲에서 14세의 소년과 대화하셨다.(요셉 스미스서 2:5~20 참조)

1825년 10월 요셉 스미스가 조시아 스토웰(또는 스토얌)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고용되어 있는 동안 그는 엠마 헤일을 만났다.(요셉 스미스서 2:55~57 참조)

1828년 2월 마틴 해리스는 금판에 있는 글자의 사본과 그 번역을 뉴욕 시에 있는 학자들에게 가져갔다.(요셉 스미스서 2:62~65 참조; 또한 이사야 29:11~12 참조)



1828년 4~6월 요셉 스미스는 서기인 마틴 해리스와 함께 몰몬경의 처음 부분 116쪽 분량의 번역을 끝냈다. 마틴이 이 원고를 분실한 후에 모로나이는 요셉에게서 판을 가져다갔다.

3 10

1828년 여름 요셉 스미스는 회개했고, 판들과 번역하는 은사를 다시 받았다.(교리와 성약 3, 10편 참조)

팔마이라 맨체스터 뉴욕

1827년 1월 요셉 스미스와 엠마 헤일이 뉴욕 주 메인브리지에서 결혼했다.(요셉 스미스서 2:57 참조)



1827년 9월 모로나이가 성스러운 금판들과 우림과 둠뎀을 요셉 스미스에게 맡겼다.(요셉 스미스서 2:59 참조)

하모니 펜실베이니아

1827년 12월 요셉 스미스와 엠마 스미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이사했다.(요셉 스미스서 2:60~62 참조)



편수(또한 위에 있는 원 안의 숫자 참조), 그 편이 주어진 날짜, 계시가 주어진 상황:

- 1편. 1831년 11월 1일 "계명의 책"으로 출판될 계시 모음집의 서문을 입안하기 위해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대화를 위해 모인 장로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들의 작업에 관해 주님께 여쭙어 볼 것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요청했다. 예언자는 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구술했고 시드니 리그돈이 이를 기록했다.(이 항목은 도표 2에 나옴)
- 2편. 1823년 9월 21일 신성한 나타내심을 받아 자신감을 얻은 어린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관해 알기 위해 기도했다.
- 3편. 1828년 7월 마틴 해리스가 몰몬경 원고 116쪽을 분실한 후에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림과 둠뎀을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4편. 1829년 2월 요셉 스미스 일세는 자신이 주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님께 여쭙어 볼 것을 아들에게 요청했다.
- 5편. 1829년 5월 회개한 마틴 해리스는 요셉 스미스가

- 여전히 판을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또 자신이 그 판들을 보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요셉이 주님께 여쭙어 보기를 원했다.
- 6편. 1829년 4월 요셉 스미스의 새로운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는 번역이 참되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원했다. 예언자는 우림과 둠뎀을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7편. 1829년 4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판을 번역하고 있는 동안 제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우림과 둠뎀을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8편. 1829년 4월 번역하는 은사를 약속 받은(교리와 성약 6:25 참조) 올리버 카우드리는 번역을 돕고 싶었다.
- 9편. 1829년 4월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하다가 실�했을 때, 요셉 스미스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올리버를 대신하여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10편. 1828년 여름 요셉 스미스가 3편을 받은 후에 모로나이는 판들과 우림과 둠뎀을 가져갔다. 얼마 후에 요셉 스미스는 그것들을 돌려받았다. 예언자 요셉은 어떻게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11편. 1829년 5월 하이람 스미스는 동생인 요셉에게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여쭙어 달라고 요청했다. 요셉은

- 우림과 둠뎀을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12편. 1829년 5월 조셉 나이트 일세는 회복의 사업에 있어서의 자신의 의무를 명시 알고 싶었다.
- 13편. 1829년 5월 15일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들은 가까운 강으로 걸어가서 기도했다.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 14, 15, 16편. 1829년 6월 데이비드 휘트머, 존 휘트머, 피터 휘트머 일세는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의무를 명시 알고 싶었다. 요셉 스미스는 그들을 대신하여 우림과 둠뎀을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17편. 1829년 6월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는 그들이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는 세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림과 둠뎀을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18편. 1829년 6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신권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명시 원했고 겸손히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19편. 1830년 3월 마틴 해리스는 몰몬경을 인쇄하기 위해 자신의 농장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는 주님으로부터의 재확인과 지시를 요셉 스미스에게



요셉 스미스 일세 1771~1840년



루시 맥 스미스 1775~1856년



요셉 스미스 이세 1805~1844년



엠마 헤일 스미스 1804~1879년



마틴 해리스 1783~1875년

삽화(왼쪽): 로버트 티 벡렛; 맨 위(왼쪽부터): 그림: 해리 앤더슨, 그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그림: 화가 미상,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국 독립 선언문 서명의 재현 © COMSTOCK; 그림: 톰 홀드먼, 첫번째 시현; 그림: 톰 로벨;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모로나이 천사; 네이던 바튼의 그림 일부; 그림: 윌리엄 휘티커, 마틴 해리스와 안드루 코우; 아래(왼쪽부터): 그림: 폴 만, 함께 상의하는 스미스 가족의 일부, 복제 불허; 그림: 폴 만, 집을 떠나는 루시 맥 스미스의 일부 복제 불허; 그림: 델 파슨, 미국의 예언자, 복제 불허; 그림: 리 그린 리처드, 엠마 헤일 스미스.

교회 본부들

뉴욕 주 페이엣; 1829년 6월~1831년 1월

4

5

6-9

11-12



13

14-16, 18

17

페이엣
뉴욕



1830년 4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뉴욕 주 페이엣에서 조직되었다. (교리와 성약 21편 참조)



1830년 4~7월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로 일했다. 그들은 물문경을 사용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침례했다.

1829년 5월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서로를 성임하고 침례를 주었다. (요셉 스미스서 2:68~73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1829년 5~6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과 사도 직분의 열쇠를 회복했다.



1829년 6월 모로나이 천사가 세 목격자에게 편을 보여주고 물문경의 참됨에 관해 간증할 것을 그들에게 명했다. (교리와 성약 17편 참조)

1829년 6월 요셉 스미스가 여덟 목격자에게 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물문경의 참됨에 대한 자신들의 간증을 기록했다.

1830년 3월 물문경 5천 부가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영어로 출판되었다.

19

20-21

22-23

요청했다.

20편. 1830년 4월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자상에 다시 한 번 조직해야 할 정확한 날짜를 포함하여 교회의 행정과 조직에 관한 지침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아에게 밝혀 주셨다.

21편. 1830년 4월 6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를 조직하는 모임 동안에 영으로 이 계시를 받아적었다.

22편. 1830년 4월 이전에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그들이 재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23편. 1830년 4월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요셉 스미스 일세, 조셉 나이트 일세는 새로이 조직된 주님의 교회에서의 자신들의 의무를 묻지 않고 싶었다.

24편. 1830년 7월 격렬한 박해의 시기 동안 뉴욕의 회원들을 도운 후에 예언자 요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격려와 가르침이 필요하여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했다.

25편. 1830년 7월 엠마 헤일 스미스는 남편인 예언자 요셉과 함께 많은 박해를 겪었다. 예언자는 그녀를 위해 이 계시를 받았다.

26편. 1830년 7월 주님으로부터 온 이런 가르침들이 예언자 요셉, 올리버 카우드리, 휘트머 가족들에게 격려와 지시를 주었으며, 교회에서 만장 일치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27편. 1830년 8월 예언자 요셉과 엠마 스미스, 뉴웰 나이트와 리디아 나이트는 성찬을 취하고 싶었다.

예언자는 의식을 위해 포도주를 사러 갔고 하늘에서 온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28편. 1830년 9월 예언자 요셉은 하이람 페이지가 선견자의 돌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걱정했다.

29편. 1830년 9월 여섯 명의 장로가 있는 가운데 주어진 이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 즉 새 예루살렘의 교리에 흥미를 갖고 있을 때 주어졌다.

30편. 1830년 9월 예언자 요셉은 하이람 페이지 사진 동안에 행한 데이비드 휘트머, 피터 휘트머 이세, 존 휘트머의 행동에 관해 그들을 위한 계시를 받았다.

31편. 1830년 9월 토마스 비 마쉬는 자신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32편. 1830년 10월 올리버 카우드리와 피터 휘트머 이세를 포함하여 여러 장로들은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지정된 선교사의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33편. 1830년 10월 새로이 장로에 성임된 에즈라 테이어와 노드롭 스위트는 그들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34편. 1830년 11월 4일 올슨 프랫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보고 자신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320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35편. 1830년 12월 당시 최근에 침례를 받았던 시드니 리그돈은 자신에 관한 주님의 뜻을 밝혀 줄 것을 예언자 요셉에게 요청했다.

36편. 1830년 12월 에드워드 패트리지는 자신을 대신하여 주님께 여쭙어 줄 것을 예언자 요셉에게 요청했다.

37편. 1830년 12월 뉴욕에서 교회 회원들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의 목숨은 위협에 처해 있었다. 예언자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성경의

영감역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하이오로 이동하라는 명을 주셨다.

38편. 1831년 1월 2일 많은 성도들이 가난했고 오하이오로의 이동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다.

39편. 1831년 1월 5일 약 40년 동안 침례교 목사였던 제임스 코빌은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에게 주신 어떤 계명에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언자는 그를 위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40편. 1831년 1월 제임스 코빌이 주님의 명을 저버렸을 때,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

41편. 1831년 2월 4일 예언자 요셉은 오하이오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수많은 문제를 발견했다. 그는 교회를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을 알기 위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42편. 1831년 2월 9일 교리와 성약 38편 32절과 41편 2~3절에 약속된 것처럼, 장로들은 주님의 율법을 받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43편. 1831년 2월 허블이라는 이름의 자칭 여성 예언자가 그녀의 계시를 가지고 몇몇 성도들을 속였다. 예언자 요셉은 그 일에 관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44편. 1831년 2월 예언자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교회의 다음 대회와 관련해 주님께 지시를 받았다.

45편. 1831년 3월 7일 예언자 요셉은 그릇된 많은 기사들이 나돌던 시기에 시대의 표적에 관한 이 계시를 받았다.

46편. 1831년 3월 8일 교회 회원들만이 성찬식과 확인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한 후에 예언자는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47편. 1831년 3월 8일 존 휘트머는 교회 역사와 관련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리버 카우드리
1806~1850년



하이람 스미스
1800~1844년



조셉 나이트 일세
1772~1847년



데이비드 휘트머
1805~1888년



존 휘트머
1802~1878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제1기: 1831년 2월~1831년 9월

1830년 6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성경을 번역(영감)에 따라 수정하기 시작했다. (모세서 1~5장 참조)

1830년 9~10월 올리버 카우드리와 다른 사람들이 레이멘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 받았다. (교리와 성약 28:8; 32편 참조)

1830년 10~11월 선교사들이 오하이오 주 북동 지방을 방문해 127명을 침례했다.

1830년 11~12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예복의 고대 문서의 일부를 계시로 받았다. (모세서 6~7장 참조)

41-44

45-49

50-51

52-56

63

64

1831년 2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최초로 교회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한낱의 법을 계시하시기 시작했다. (교리와 성약 41~42편 참조)

커틀랜드/ 톨슨 오하이오



1831년 2~5월 뉴욕 주의 여러 지방에서 온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으로 여행했다. 커틀랜드 주변의 여러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57

58-62

미주리



1831년 7~8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미주리 주를 방문하여 그 땅을 집합 장소와 성전 부지로 헌납했다. (교리와 성약 57~59편 참조)

1831년 8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미주리에서 커틀랜드로 돌아왔다. 반대와 배도가 계속되었다.

1831년 9월 예언자 요셉과 엘마 스미스가 오하이오 주 하이람으로 이사했다.

24-26

27

28-31

32-33

34

35-37

38-40



주님의 뜻이라면 행하고 싶었다. 예언자 요셉은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48편. 1831년 3월 교회 지도자들은 오하이오에 도착하고 있는 뉴욕 성도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했다. 예언자 요셉은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49편. 1831년 3월 과거 쉐이카 교도였던 리먼 코프리가 최근에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언자 요셉은 이 종교의 몇몇 가르침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50편. 1831년 5월 여러 장로가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영의 나타남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볼 것을 예언자 요셉에게 요청했다. 이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한 후, 예언자는 주님의 대답을 받아 쓰게 했다.

51편. 1831년 5월 에드워드 패트리지 감독은 오하이오에 도착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헌납의 법을 실천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구했다.

52편. 1831년 6월 7일 최초의 대제사들이 성임된 연차 대회 후에 예언자 요셉은 다음 대회 때까지 형제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53편. 1831년 6월 시드니 길버트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부름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줄 것을 예언자 요셉에게 요청했다.

54편. 1831년 6월 리먼 코프리가 오하이오 주 톨슨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헌납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렸을 때

예언자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55편. 1831년 6월 신문 편집인,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자신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줄 것을 예언자 요셉에게 요청했다.

56편. 1831년 6월 에스라 테이서가 미주리로 갈 준비가 되지 않자 그의 여행 동반자 토마스 비 마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예언자에게 여쭙어 보았다.

57편. 1831년 7월 20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자 요셉은 말일에 있을 시온의 설립과 그 곳에 지어질 성전에 관한 응답을 주님께 간구했다.

58편. 1831년 8월 1일 미주리 주 잭슨 군에 도착하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관한 주님의 뜻을 몹시 알고 싶어했다.

59편. 1831년 8월 7일 폴러 나이트의 장례식 후에 예언자 요셉은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주님께 확신을 구했다.

60편. 1831년 8월 8일 선교사들이 오하이오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할 때, 예언자 요셉은 그 여행에 관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61편. 1831년 8월 12일 미주리 강에서의 통나무 배 사고로 예언자 요셉과 10명의 장로들은 야영을 하게 되었다.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권세를 갖고 물 표면을 타고 오는 파괴자를 보았다. 예언자는 기도로 주님께 간구했다.

62편. 1831년 8월 13일 예언자 요셉은 미주리로 뒤늦게 출발했던 네 명의 선교사를 만나서 그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63편. 1831년 8월 오하이오에 있는 성도들은 시온의 땅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다. 예언자 요셉은 토지 구입과 다른 일들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64편. 1831년 9월 11일 예언자 요셉이 일부 측근과 신문에 의해 비판을 받은 후 주님은 결점을 찾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피터 휘트머 이세 1809~1836년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1808~1844년



뉴엘 나이트 1800~1847년



시드니 리그돈 1793~1876년



에드워드 패트리지 1793~1840년

맨 위 왼쪽부터: 그림: 케네스 라일리, 열기시엔 신권의 회복; 그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난 침례 요한; © 엘 파슨, 복제 불허; 그림: 폴 만, 굶판을 보는 여덟 목격자 복제 불허; 삽화: 로버트 티 베헤트,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그림: 데이일 길번, 교회의 조직-1830년 4월 6일; 그림: 샘 롤러, 커틀랜드를 떠나는 성도들, 복제 불허; 그림: 데이일 길번,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의 성전 부지 헌납; 아래쪽 왼쪽부터: 하이람 스미스, 루이스 에이 렉스; 요셉 스미스와 조셉 나이트 부자, 폴 만, 복제 불허; 그림: 루이스 에이 렉스, 데이비드 휘트머; 그림: 윌리엄 휘티커, 피터 휘트머; 그림: 브래드 티어,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그림: 폴 만, 요셉 스미스와 조셉 나이트 부자, 복제 불허



David O. McKay

신앙의 특사

맥케이 대관장은 교회 대관장으로서 19년 동안 세계 곳곳을 방문했다.
그 기간 동안 교회 회원 수는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

웨이드 머독

19

53년 어느 비 오는 아침, 79세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자신의 조상들이 100년전에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던 집을 보기 위해 스코틀랜드 서소우를 방문했다. 이 여행에 동반했던 맥케이 대관장의 아들, 르웰린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 집으로 다가가갈 때,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와, 마치 부친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반영하듯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가 모두 집 앞에 모였을 때 문을 바라보는 부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850년경에 두 명의 선교사가 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곳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¹

크게 훼손되었던 집으로, 그 당시에는 그저 감자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맥케이 대관장은 출입구에 한동안 머물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다정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날 맥케이 대관장이 표한 감사와 기쁨은 그의 생애와 성역의 특징을 반영했다. 제9대 대관장으로서의 19년을 포함하여 거의 64년 동안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던 그는 사람들과 복음을 깊이 돌보고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헌신적인 예언자로서 봉사했다.

이로운 부모

1873년 9월 8일, 유타 주 헨츠빌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오만 맥케이는 데이비드 맥케이와 자네트 에반스 맥케이의 장남이었다.



어린 데이비드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부친은 비록 당시 맥케이 자매가 출산 예정이었고 어린 아들만이 농장 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봉사하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아내의 격려는 분명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교사 부름장을 읽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데이비드와 제가 모든 일을 잘 꾸려 갈 거예요.”²

자네트의 관리 하에 농장은 잘 운영되었다.

데이비드 일세의 선교 사업 동안 가족들은 세상적인 번영뿐 아니라 강한 영적인 성장도 이루었다. “가족 기도는 맥케이 가정에서 당연한 절차였으며 남아 있던 소수의 가족들에게 그것은 하루 일과 중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데이비드 2세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의 순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으며 가정에서 하늘의 축복의 중요성을 배웠다.”³

훗날 연차 대회 말씀에서 맥케이 대관장은 기도와 관련하여 어렸을 적의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 주었다.

“하루는 [잠자리에] 누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였던 저는 본능적으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종종 누운 채, 강도와 무서운 것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날 밤 저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을 모아 자리에서 일어난 후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위: 어린 시절의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7년.
아래: 데이비드 맥케이 일세와 자네트 맥케이 가족, 1897년. 데이비드 대관장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서 있다. 오른쪽: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의 맥케이 장로, 1898년.

간구했습니다. 그 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 음성을 듣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예, 물론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상상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영혼에 어린 아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감미로운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⁴

그의 부친의 가르침과 모범은 어머니의 그것만큼이나 강력했다. 한번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남동생들, 그리고 부친이 건초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십일조로 교회에 내야 하는 열 번째 더미를 거둘 시간이 되자, 데이비드 맥케이 일세는 앞서의 아홉 더미를 모았던 곳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린 데이비드가 그 이유에 관해 묻자 부친이 말했다. “그것은 열 번째 더미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야 하지.” 여러 해가 지난 뒤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이 경험이 “내 생애에서 들었던 십일조에 대한 설교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⁵

부모의 영향력에 관한 맥케이 대관장의 이해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 갔다.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칠 때, 개인적 경험은 그의 가르침의 근원이 되었다.

“모범적인 아버지의 교훈에 충실한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 청소년 시절에 한 번 이상 실감한 것이 내 발걸음을 유혹의 벼랑에서 돌이키게 해 주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현명한 어머니, 그 다음으로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것이다.”⁶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사랑을 키움

청소년과 청년으로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학문, 체육, 음악, 대중 연설, 지도력을 포함하여 많은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의 가장 큰 재능이 그 중에서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에게 있어 가르치는





일은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889년 15세의 나이에 그는 와드에서 주일학교 서기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후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4년 동안 그 직책에서 일했다. 그는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동안 헌츠빌 초등학교에서 교사 겸 교장으로 일했는데, 그것은 대학 교육을 받기 전의 일이었다.

이미 많은 교육 경험을 한 후인 1894년부터 1897년까지 유타 대학교를 다녔으며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교사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그에게는 가르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그는 1897년부터 1899년까지 봉사했다.

그의 전도 경험에는 수많은 야외 모임이 들어 있는데, 거기서 그와 다른 선교사들은 길거리 구석이나 공공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자료나 소책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선교사 일지에 나와 있듯이, 각 모임은 그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별히 어려웠던 한 야외 집회 후에 맥케이 장로는 “수천 번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기록했다. 보다 관촬았던 모임 후에 그는 또 이렇게 기록했다. “여러 번의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다. 지난 주에 전도 자료를 가져갔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언제 다른 모임을 갖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물어 왔다.”⁷

189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감리하는 동안 그는 글래스고의 한 지역 신문에 교회에 관해 게재했던 중상적인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그 신문에 실을 기사를 준비했다. 이 경우 그리고 그가 20년 후에 선교부장으로서는 접하게 된 비슷한 상황에서 그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는 그 부드러운 논조와 사리에 맞는 가르침 덕분에 효과를 거두었다.⁸

선교 사업에서 해임된 직후에 그는 웨버 스테이크 주일학교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교사 자료를 개정함으로써 교실 학습을 재조직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임무를 받았다. 웨버 스테이크에서 6년을 봉사한 후에 그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의 제2보좌가 되었는데, 당시 회장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었다. 그는 1909년에 제1보좌, 그리고 1918년에는 회장이 되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초기 시절에 그는 한편으로

공립학교에서 일했다. 그는 현재 웨버 주립 대학교로 알려져 있는 유타 주 옥든 소재의 웨버 스테이크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당시 학생이었고, 나중에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 된 조셉 앤더슨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 모두는 그 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가르치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때로는 끝나는 종이 울리는 것조차도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⁹

그는 모든 교육이 기독교인다운 성품을 키워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된 교육이란 사람들을 수확자, 능숙한 언어학자, 탁월한 과학자, 혹은 뛰어난 문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덕성과 절제,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을 지닌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정의, 지혜, 유덕함, 그리고 자제력을 성공한 사람들이 성취하는 가장 뛰어난 특성으로 여기게 한다.”¹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그의 생애 내내 계속되었으나, 공립 학교에서 공식적인 전임 교사로 가르치는 일은 1906년, 그가 32세의 나이에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끝이났다.

남편과 아버지

1901년 1월 2일에 있었던 엠마 레이 릭스와의 결혼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게는 기쁨의 근원이었다. 그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성공적인 결혼에 관해 가르치며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지속적인 구애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제단에 나오는 너무나



위: 유럽 선교부에서 봉사할 때의 맥케이 부부, 1922~1924년.
아래: 대관장단, 1951년-맥케이 대관장(가운데); 제1보좌, 스티븐 엘 리차즈(왼쪽); 제2보좌,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오른쪽)
오른쪽: 네덜란드에서 도노반 에이치 반담 선교부장(오른쪽)과 그의 아내 에이이다(왼쪽)와 자리를 함께한 맥케이 부부, 1952년.

많은 부부들이 결혼 의식을 영원한 구애의 시작이 아니라 종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힘들어지는

동안-그러한 때가 오면-부드러운 감사의 말과 예의 바른 행동은 구애를 하던 기간 동안보다 더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¹¹

맥케이 대관장은 이런 권고를 실천하여, 아내의 생일에 그녀를 위해 사랑의 시를 짓고,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 주고, 애정에 찬 입맞춤으로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작별을 했다. 한 번은 맥케이 대관장과 자매가 캘리포니아를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맥케이 대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는 분이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¹²

일곱 명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의 의로움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유익을 얻었다. 한 아들인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는 이렇게 회상했다. “부모님의 기대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 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이 먼저 서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¹³

십이사도 정의회와 대관장단에서의 봉사

1906년 4월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맥케이 장로는 그 해 10월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자신의 첫 번째 연차 대회 말씀을 전했다. 봉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한 말씀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회원들로서 ... 우리가 총관리 역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집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¹⁴

47세이던 1920년에 맥케이 장로는 일 년 동안 전세계에 있는 지부와 선교부를 방문하면서 강화시키라는 부름을 받았다. 여러 면에서 이 여행은 그가 대관장단으로 봉사하면서 전세계적인 면을 강조한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맥케이 장로와 솔트레이크시티 리버티 스테이크장이었던 동반자 휴 제이 캐넌은 약 95,000 킬로미터를 여행했으며 이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세계적인 성장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지식을 얻었다.

1년에 걸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그는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말이 그의 상투어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회원의] 누군가를 데려올 책임이 있습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접촉은 그러한 구도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 그 영향은 여러분이 가장해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이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공부하게 합니다.”¹⁵

1934년에 그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보좌로서 대관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1945년에 그는 또한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이 시기에 그는 값진 경험을 얻었고 실질적인 행정 및 중무 책임을 수행했다.

1951년 봄에 맥케이 부대관장과 자매는 정말로 필요했던 휴가를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났다.



하지만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맥케이 대관장은 교회 본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했다. 몇 주 후에 스미스 대관장은 뇌경색을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¹⁶

전세계적인 교회의 예언자이자 대관장

1951년 4월, 이미 17년 동안 대관장단에서 봉사해 왔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부대관장은 제9대 교회 대관장이 되었다. 그 당시 교회 회원 수는 백만 명이 조금 넘었고 여덟 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다.(모든 성전은 미국, 하와이, 캐나다에 있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교회가 전세계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결심을 가졌다. 이런 노력에서는 선교 사업이 열쇠였다.

1952년에 대관장단은 전임 선교사들을 위해 최초의 공식적인 전도 요강을 소개했다. 1961년에 맥케이 대관장은 모든 전임 선교부장을 대상으로 최초의 전세계 세미나를 소집하여 선교 사업에서의 모범과 우정 증진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맥케이 대관장은 전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열쇠라고 느꼈다.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는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 교회는 범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어 그들의 마음이 선의와 평화를 향해 기울어지기를 기원합니다.”¹⁷ 1952년부터 1963년 사이에 그는 여러 차례 유럽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고 남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으로 여행했다.

또한 그는 교회의 더 많은 회원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 대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스위스 베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뉴질랜드 해밀튼, 영국 런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을 헌납했다. 그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의식과 예식의 영원성”¹⁸ 임을 굳게 믿으며 “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가져다주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세계를 다니면서 맥케이 대관장은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여겨졌다. 1952년에 네덜란드 여왕을 방문하는 동안, 맥케이 대관장과 자매에게 흥차가 나왔다. 맥케이 부부가 종교적 이유로 사양을 하자 여왕이 물었다. “네덜란드 여왕을 만났는데 한 모금의 차도 들지 않았습니까?” 맥케이 대관장이 대답했다. “130만 명을 거느린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일을 [여왕께서] 권유하시겠습니까?” 여왕이 대답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 저도 차를 마시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¹⁹

교회 회원들은 맥케이 대관장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고 단순히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했다. 자신의 많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모임이 끝난 후 남아서 개개인과 악수를 나누었다. 영국 런던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예언자와 인사하기 위해 “끝없는 줄을 따라 섰다”가 결국 자기 차례를 맞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를 그저 수백 명 중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쉽사리 여길 수 있었는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느낌이 들도록 하셨습니다.”²⁰

맥케이 대관장의 건강은 1960년대에 약해지기 시작했고,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두 명 외에 다른 보좌들이 대관장단에





위: 영화 제작자 세실 비 드밀 및 배우 찰턴 헤스턴(모세 의상 차림)과 함께 영화 십계 촬영장에서의 맥케이 대관장과 자매, 1955년. 오른쪽 아래: 말년의 맥케이 대관장. 휴 비 브라운은 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맥케이 대관장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회원들을 강화시켰으며, 때로는 본인이 직접, 때로는 아들 중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했다.

1970년 1월 사망할 당시에 교회 회원 수는 거의 삼백만 명에 육박했다. 가족, 극기, 성품, 선교 사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해 지칠 줄 모르고 가르쳤던 그에 대해, 맥케이 대관장의 뒤를 이어 교회 대관장이 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타고난 지도자요, 회원으로부터 사랑 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일어서서 그의 이름을 복되다 할 것입니다.”²¹

맥케이 대관장의 제1보좌로 봉사했던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다. “맥케이 대관장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마음속의 충만함을 동경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사랑에 의한 비이기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²²

웨이드 머독은 유타 사우스 조던 스테이크 사우스 조던 제3와드의 회원이다.

주

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년), 49쪽에서 인용.
2.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v쪽에서 인용.
3. Jeanette McKay Morrell,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v에서 인용.
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9쪽.
5.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v쪽 참조.
6. Llewelyn R. McKay, Home Memories of President David O. McKay(1956년), 4쪽.

7. David Lawrence McKay, My Father, David O. McKay(1989년), 18, 24쪽.
8. My Father, David O. McKay, 29쪽 참조.
9. My Father, David O. McKay, 36쪽 참조.
10.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x~xx쪽.
1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49쪽.
12.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43쪽에서 인용.
13.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53쪽에서 인용.
14. Conference Report, 1906년 10월, 112쪽.
15.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53쪽.
16. 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1986년), 272~273쪽 참조.
17.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xvi쪽.
18.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26쪽.
19.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03쪽에서 인용.
20. My Father, David O. McKay, 259~260쪽 참조.
2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xviii에서 인용.
22. “God Makes a Giant among Men”, Church News, 1970년 1월 24일, 13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기뻐함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요셉 스미스서 2:18~19: “나는 … 빛 가운데 계신 그분들께 어느 교파가 옳은 … 가를 물었습니다. …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회복은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건인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기’ [요셉 스미스서 2:19]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의 열쇠를 잃었으며 스스로 계시의 경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권능은 다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권능은 고대에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4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어둠과 고통과 투쟁의 세기가 여러 번 지난 후 복음 회복의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 그 영광스러운 날은 1820년에 동이 텅으며, 이 해에 진지하고 신앙이 돈독한 한 소년이 숲속으로 들어가 … 소리를 높여 기도 드렸습니다. …

“그러자 그 응답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천 년 동안 닫혀 있던 장막이 걷히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 인류사의 위대한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을 인식합니까? 지금은 지나간 모든 시대의 초점입니다. 이 시대는 회복의 시대요, 이 날들은 회복의 날들입니다.” (“모든 시대의 정점에서”,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8~89쪽)

어떻게 여러분은 회복을 기뻐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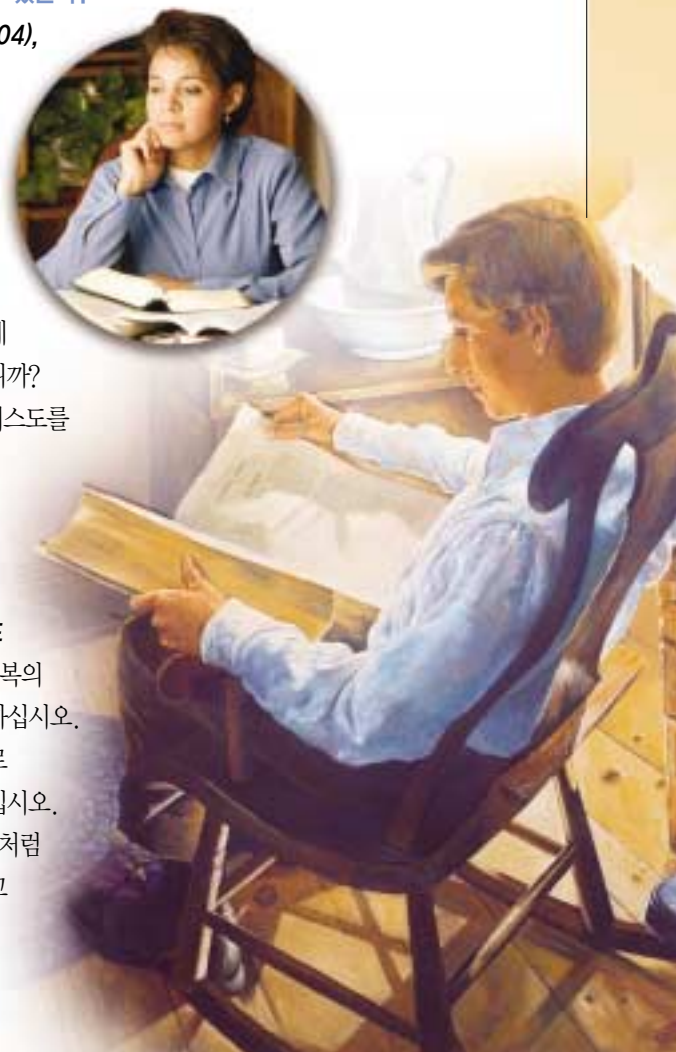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좀더 완전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회복된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충만함에 최대한의 감사를 포함 수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감사함을 표함시다.” (“태초부터”,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2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요셉 스미스의 모범과 회복의 모형을 따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성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1쪽)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회복의 기적과 비견되는 기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회복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저는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 단순한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영은 항상 이 사건의 실재에 관해 제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



힘껏 사랑 하다가 다시 힘겹게 찾은 사랑

구세주께서 남편을 바라보시듯이 내가 그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내 결혼 생활을 바꾸는 열쇠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

세 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랑이 식는 것 역시 쉬울 수 있다. 반면 사랑이 식은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사랑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길고도 어려운 여행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값진 일이다. 나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남편과 정말로 험악한 말다툼을 한 후에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11월이었고 매우 추웠다. 신발이나 외투도 없이 나왔지만 너무도 심경이 복잡해 그런 상황을 거의 깨닫지도 못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신체적인 확대는 없었지만 항상 혹은 너무 자주, 적어도 남편이 집에 있거나 하면 싸우는 것 같았다. 남편은 거의 매일 늦게까지 직장에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골프장에서 보내곤 했다.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집에 있다는 것은 남편에게나 내게나 그저 비참한 일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추운 날, 밖에서 앓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냈다. 기도를 드리면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특별히 그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

내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았다. 집을 떠나 이혼을 하거나,

남아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떠난다면 내 결혼 생활은 실패할 것이고 영원한 가족에 대한 내 소망마저 포기해야 했다. 내 결정으로 인해 자녀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린 시절을 편부모 가정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냥 머문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무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분명 해의 왕국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가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고 또 서로 바라보기만 하면 감정을 상하게 되는 탓에 나는 자녀들이 무척이나 불행한 가정에서 억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도했다. “어떤 선택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는데, 전에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생각이었다. 즉 나는 머물면서 남편 마크(가명)를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 같았다. 비록 그런 일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가족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마크와 다시 사랑에 빠지려고 노력했지만 좌절만을 겪게 되었다. 최선의 노력이 실패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더 잘 대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환상적인 저녁 식사를 만들었을 때 그는 늦게 나타났다. 내가 사랑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조그마한 일을 그를 위해 했을 때, 그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났다. 나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기대했던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삼 주 후에 나는 전보다 더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가장 겸손한 기도는 아니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부끄럽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분께 알려드렸다. “마크는 눈치도 없는 바보입니다.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기꺼이 거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 주실 수는 없사옵니까?” 나는 이렇게 여쭙었다. “주님께서 남편을 더 좋게 하실 수는 없사옵니까? 주님께서 제발 그를 고쳐 주실 수는 없사옵니까?”

강한 느낌이 즉시 찾아왔다. “네 자신을 바꿔라.”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확신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마크의 끔찍한 모든 성품들, 정말로 분명한 문젯거리였던 사항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혼란한 마음속에 다시 “네 자신을 바꿔라.”는 느낌이 왔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했다. “해보겠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부디 제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세요.”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무릎을 꿇고 기나긴 기도를 여러 차례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지만 웬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았다. 집을 떠나 이혼을 하거나 남아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자 주님은 제 삼의 선택을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우리의 복음 교리반 교사를 통해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공과 동안에 우리는 모로나이서 7장 47~48절을 읽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는 참된 사랑에 대해 토론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시는 사랑이다. 나는 구세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서든 발견하실 수 있다.

교사는 반원들에게 경전을 다시 보라고 했다. “48절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가하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이웃이나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얻습니까?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 하고 그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그분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선하고 사랑스럽게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응답이었다. 내가 마크를 구세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껏 내가 노력해 왔던 어떤 일보다도 행하기가 훨씬 쉬운 일 같았다. 나는 사랑을 간구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소한 내게 어떤 작은 일을 요구하실 것임을 나는 알았어야 했다.

나는 그 날 밤 무릎을 꿇고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간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크에게 느끼신 사랑의 일부라도 느끼고, 그에 대해 그분이 볼 수 있는 좋은 점을 보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가 마크에 관해 좋은 점들을 벌써 알고 있어야 했고, 그것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찾아왔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점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오늘은 남편이 멋있게 보였어.”라고 말했다. 나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부탁하면 쓰레기를 갖다 버려주지.” “그는 열심히 일해.” “아이들과 잘 놀아줘”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다음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사랑을 간구했고 마크에 관해 좋은 점을 말하고 싶은 느낌이 다시 들었다. 이것은 힘든 일이었다. 나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적이 별로 없었다. 나는 내가 고쳐 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의 결점들을 죽 늘어놓곤 했다.

나는 매일 밤 잠시나마 그의 좋은 점들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곧 깨닫고는 하루 내내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쉬울 것이라고 마음 먹었다. 다음날 나는 면밀히 살펴보고 그의 좋은 점 열 가지를 찾았다. 신기록이었다!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열 가지 좋은 점을 찾는 것이 내 목표가 되었다. 기분 좋은 날에는 그것이 쉬웠다. 기분 나쁜 날에는 “그의 두발 상태가 멋지게 보였어.” 내지는 “그가 입은 청바지가 좋아.”라는 말이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매일 밤 그 일을 했다.

얼마 후 나는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열 가지 긍정적인 점을 말하기 시작했다. 10 대 1의 비율로 인해, 나는 마크의 결점을 그렇게 빈번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서서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먼저, 나는 마크가 엄청난 바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간과해 왔거나 잊고 있었던 훌륭한 많은 성품들을 갖고 있었다. 둘째, 내가 심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마크는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그에게 상기시켜 왔던 나쁜 많은 습관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을 멈추자마자 그는 자신이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더 많아졌다.

우리의 관계에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내가 마크에 대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연결되는 느낌, 서로 함께한다는 느낌을 간절히 바랐다. 이제까지 다섯 달 동안 나는 매일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해 느끼신 사랑을 느끼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마크에 대한 사랑을 내게 주실 것을



내 가 마크를 구세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소한 내게 어떤 작은 일을 요구하실 것임을 알았어야 했다. 사람들은 사랑에 다시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탄원했다. “우리의 발전에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분께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낼 수 있는 최선이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마크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축복이 허가되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어느 날 밤 나의 부모님 댁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내가 탁자 건너편에 있는 마크를 보았을 때, 느닷없이 내가 이제껏 느꼈던 가장 강하고, 가장 마음 설레고, 가장 강렬한 사랑이 어떤 물리적인 힘처럼 나를 내리쳤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고, 나는 내 느낌의 힘에 압도되었다. 내 건너편에 내 영원한 동반자가 앉아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무한한 가치는 너무도 눈부셔서, 내가 과거에 그것을 간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구세주께서 내 남편 마크에게 느끼신 것을 어느 정도 나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감정이었다.

그 특별한 저녁 시간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고, 그 추억은 여전히 내 눈을 눈물로 적신다. 내가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 이런 경험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지금 내 결혼 생활은 아주 좋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매우 좋다. 나는 내 사랑이 다시 식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는

마크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와 주신 것에 대해 인내심과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깊은 감사를 느낀다. ■





가족을 강화함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¹

태초에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는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29)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시된 바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하늘의



부모가 우리의 영체를 조직했다는 것과 이 영체가 예지 곧 빛과 진리를 지니며, 이는 “하나님이 이를 놓아 두신 범위 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홀로 작용”(교리와 성약 93:30)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책임이 따르는 선택의지, 곧 지적인 존재가 어느 한 길과 다른 길 사이에서 선택하는 능력 및 자유는 영원한 원리이다.

하나님의 소산

많은 종교들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지만 종종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와 닮았다는 어떤 유대도 배제시킨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더욱 간단하면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산이 아니라
사상보다 더 많이
가족을 파괴시킨 사상도
없었습니다.”

가르쳤다.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시었습니다.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들추고, 세상 만사의 열쇠를 가지시고 권세로써 세상과 세상의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하듯 그렇게 했습니다.”²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늘 부모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힘 때문에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다르다는 하늘의 진리보다 더 위대한 것이 계시된 적이 없었습니다.(모세서 6:8~10, 22, 59 참조) 우리가 하나님의 소산이 아니라 단지 진화된 짐승에 불과하여 모든 육육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보다 더 행복을 파괴시킨 개념이 없으며 이보다 더 많은 슬픔과 상심과 비참함을 만들어 낸 철학도 없으며 이보다 더 많이 가족을 파괴시킨 사상도 없었습니다.”³

성별은 영원하며 본질적인 것임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창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 살았을 때 필멸의 육신을 갖기 이전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도 남자나 여자의 상태로 있었습니다.”⁴라고 가르쳤다.

성별은 영원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행복의 계획에는 여성과 남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의로운 결합이 요구됩니다. … 하나님의 육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창조되어 동산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 혼자였기 때문에 그의 창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남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나 혹은 아담이 다른 남자와 있었더라도 진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브가 다른 여자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제정되었습니다.”⁵

선택의지와 동성에게 느끼는 매력

오늘날 세상에는 성별에 대한 갈등 문제가 만연되어 있다. 일부 남녀들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큰 시험이 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사탄은 개인적인 책임의 원리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거룩한 창조의 힘을 오용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합당하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남성이나 여성의 의미를 혼란시키고자 노력합니다. … 어떤 종류의 감정은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또 어떤 감정은 본성과 교육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도 우리가(필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교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런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적절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죄가 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 못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⁶

지상 생활의 시험은 쉽지 않으며 쉽도록 의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거룩한 교리와 속죄의 권세에 의지하며 도움과 위안의 성령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어떤 종류의 축복도 미루지 않으실 것이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History of the Church*, 6:305.
3. “우리의 도덕 환경”,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7쪽.
4. “위대한 행복의 계획대로 사는 기쁨”,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73쪽.
5.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21쪽.
6. “동성에게 매력을 느낌”, *리아호나*, 1996년 3월호, 16~17쪽.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이 청남 청년들은 참으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마빈 케이 가드너
교회 잡지

루비의 목걸이. 그 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루비의 일상적인 등교길은 한 순간에 박살이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무리 속의 어떤 사람이 그녀가 걸고 있던 청녀 목걸이를 목에서 획 낚아채 가지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

루비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으며 그토록 귀중한 것을 떼어 낼 수 있는가? 비록 그 도둑이 목걸이를 낚아채 가긴 했지만 목걸이가 의미하는, 보다 귀중한 표준이나 가치관을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루비는 다른 청녀 목걸이를 구했다. “저는 언제나 이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누군가 다시 이 목걸이를 훔친다면 … 다른 걸 또 하나 사면 되요.”라고 루비는 말한다.

지미의 거절. 어느 날 저녁, 지미가 친구들과 파티에 갔을 때였다. “한 소녀가 와서 제게 술을 주었어요, 절 거절하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요. 술뿐 아니라 다른 것도 권했어요. 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무리에서 떠났어요. 몇몇 아이들은 제가 사교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전 그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하게 되죠.”라고 지미는 말한다.

카라카스의 루비 코르네호와 지미 플로레스는 둘 다 열일곱 살로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말일성도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힘든 세상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야서 18:9)는 길을 찾고 있다.

표준을 지킴

“우리는 학교에서 좀 곤란한 문제를 당하지만 애굽의 요셉처럼 되라고 배웠어요. 요셉은 사악한 일을 멀리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곳을 나와 버렸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쳤지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힘을 지닐 수 있어요.”라고 카라카스의 17세인 데이비드 하비에르 프랑코가 말한다.

기도와 경전 공부가 강하게 되는 데 있어 새롭거나 고유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르셀로나의 15세인 파티마 모우틴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마을에는 저 외에는 교회 회원이 아무도 없어요. 일요일마다 파티가 있고 많은 술이 있어요. 관심과 유혹이 내게 뻗칠 때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이예요.”

아론 신권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및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도 표준을 지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단지 목표를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고 그런 다음 계속 발전하며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파티마는 말한다.

여러분의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매번 저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와, 정말 내게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쁨을 느껴요.”라고 카라카스의 17세인 노렐리아 레이스가 말한다.

모범이 됨

여러분이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일 때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지닌 친구를 발견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는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카라카스의 16세인 루시아노

아래 쪽: 카라카스의 파르케 델 데스테(이스트 파크)의 청남 청년과 함께한 루비 코르네호와 지미 플로레스(왼쪽 맨 끝) 서 있는 줄: 아드리아나 안굴로, 마리엘라 루이스, 루시아노 페르난데스, 루비 코르네호, 엔리케 로페스, 노렐리아 레이스. 앉아 있는 줄: 지미 플로레스, 데이비드 하비에르 프랑코, 제랄드 호세 로페스.



카리브해를 굽어보는 오래된
요새에서 바르셀로나와
푸에르토 라 쿠르스의 청남
청녀들이 튼튼한 토대 위에
간증을 쌓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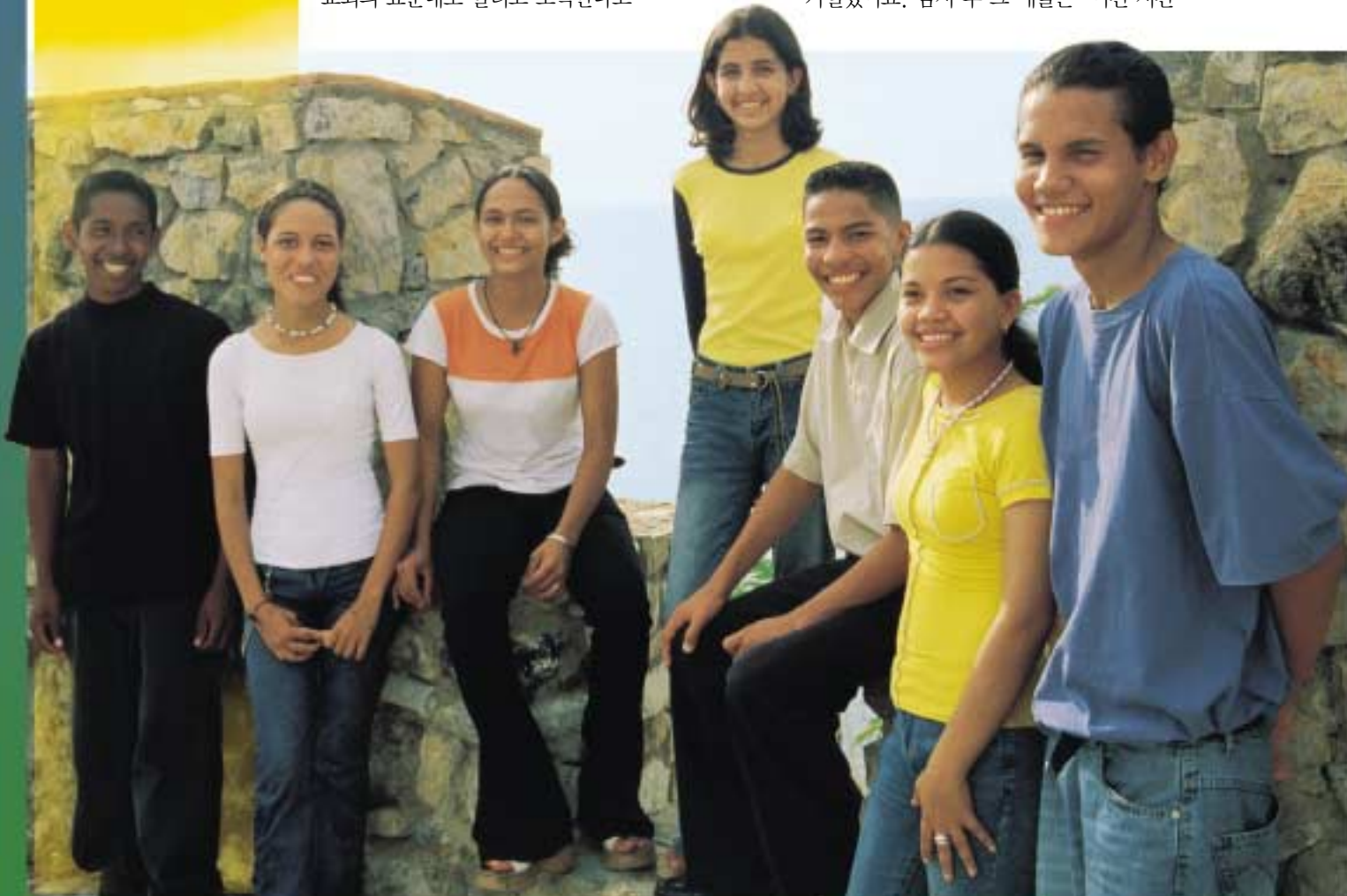
왼쪽부터: 에베르트
시폰테스, 잉그리드
로드리게스, 파티마
모우틴호, 다니엘라 마카단,
에두아르 호세 실바, 요시
콘트레라스, 하비에르
카리아스.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전 아침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학급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그
아이들 대부분은 담배를 피우고 파티를 하고 술을
먹으며 저속한 말을 해요. 그 애들은 제가 그
애들에게 올바른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애라고
알고 있어요. 책임이 무겁죠. 그애들 대부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노렐리아가 말한다. “한번은 친구들이 어딘가로
담배를 피우러 가고 있었어요. 전 ‘내 종교가
무엇인지 잊지 마, 난 그런 짓 안 해’라고
말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흡연이 나쁜 습관임을
알게 되었고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애들은 저더러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언제나 조언을
부탁했어요. 애들에게, 난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의 표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그 애들은 저의 믿음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언젠가 그 애들에게 힘의 원천이
될 씨앗 몇 알을 심었다고 생각해요.”

카리카스의 16세인 엔리케 로페스와 친구 네
명은 한번은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 친구네
집에 갔던 적이 있다. “누군가가 맥주를
가져왔어요. 전 그 애들이 내게 마시라고 권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저의 종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게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 난 그런 거 안
마셔’라고 말했어요. 그 애들은 술 마시는 것이
뭔가 잘못이냐고, 또 조금 마시는 건 해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결국엔 몸에 해가 되죠. 전
거절했어요. 잠시 후 그 애들은 ‘이건 시간



낭비야.'라고 말하며 행동을 멈추었고 우린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 애들이 저를 존중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일부 모범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존재들이다. 마라카이보의 17세인 재클린 가르샤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아버지가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그 분이 회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족 인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전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저의 신앙과 인내와 모범이 아빠를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함

이들 베네수엘라의 청남들과 청녀들은 친구들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시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나쁜 것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나쁜 것이죠. 경전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니파이서서 31:20 참조)라고 데이비드가 말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교회의 활동 회원임을 알게 된다. 많은 와드와 지부가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주 세 번씩, 저녁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세미나리를 갖는다. 때때로 금요일에 상호 향상 모임을 가져서 무도회나 파티 같은 청남, 청녀 합동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토요일에는 종종 오락 활동이나 봉사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일요일은 물론 교회 모임을 한다. 일부 청소년은 매주 전임 선교사와 함께 일한다든지, 새 회원에게 토론을 가르치는 것을 도와 주면서 시간을 보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전에 가거나 청소년 대회, 또는 일요일 저녁 예배에 가기도 한다.

“교회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교리에 대해서도 배우죠.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또 새 친구들도 만나요. 그들은 제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들을 믿고 있어요.”라고 지미는 말한다.



어머니를 되돌아오게 함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라는 말씀은 진리인가? 마라카이보의 16세인 호세 하비에르 알라콘은 이 경전의 약속을 시험했다.

“제가 여덟 살인가 아홉 살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 후에 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초대했고 결국 저는 침례 받기를 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침례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활동적이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열두 살이 되자 어머니는 결국 침례를 허락하셨어요. 복음 속에서 성장하면서 전 어머니가 교회로 돌아오시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어머니는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호세 하비에르의 어머니, 미리암은 8년 동안이나 교회와 떨어져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교회에 다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큰 신앙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변화를 주셨으며, 그 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빛을 쬐어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이들을 제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예요. 저는 그 한 부분을 행해야 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호세 하비에르가 말한다.

이제 호세 하비에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인 10세의 헤수스 데이비드는 성전에 다녀왔다. 하비에르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고, 어머니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500명의 반원 앞에서

16세인 글라디스 게레로는 마라카이보의 군사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말일성도였다. 학교에서의 첫 주 동안 그녀는 500명의 모든 학생들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많은 학생들이 글라디스의 생활 방식을 조롱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지, 즉 술을 마시지 않거나, 어떤 파티에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들이 학교 옆을 지나갈 때 제가 그들을 불러서 몇몇 학생들에게 소개를 시켰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제가 보낸 많은 구도자를 갖게 되었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글라디스의 반 친구 열 명이 그 후 몇 달 사이에 침례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 쌓기

이들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사실상 교회 활동으로 돌아온 몇몇 옛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자주 저활동 청소년을 방문해요. 우리는 한 지역에 서너 명씩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놓친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여 교회로 돌아왔어요. 우리 와드의 세미나리반은 열네 명이었는데 지금은 스무 명이예요.”라고 마라카이보의, 15세 소년인 아난겔리스 콜린다노가 말한다.

마라카이보의 15세 소년인 호수에 디아스도 와드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았다. “작년에 두 와드 연합 세미나리에는 아홉 명만 있었어요. 우리는 금식하고 사람들을 방문했어요. 그 후 반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한 와드는 열여섯 명이고 다른 와드는 열다섯 명이예요.”

또 하나의 성공 프로젝트로 수요일 저녁에 저활동 청소년들의 집에서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이다. “부모님들 중 일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어요.” 라고 재클린이 말한다. “사실상 이들 청소년 대부분이 가족 중 유일한 회원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들의 부모들은 우리를 들어오게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 한 명이 공과를 하고 질문과 조언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일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것을 기뻐하고 아직도 자신들이 간증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정의 표현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어야 한다. 재클린은 이렇게 말한다. “가끔은 활동적이지 못한 청소년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항상 교회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 알고 노력하며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려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기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데이비드는 한 훌륭한 친구의 삶에서 기적을 보았다.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친구가 저활동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어 그 친구를 다시 만나 얘기할 기회를 갖게 해주셨어요. 전 그 친구가 저를 돕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처럼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위해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그 친구는 우리 제사 정원회의 활동 회원이 되었어요.”

성전 참석

베네수엘라의 많은 십대들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이 세워지기 전, 성전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했다. 아직도 카라카스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와 푸에르토 라 크루스로부터의 여행은 6시간 정도 걸리며 마라카이보로부터의 여행은 10시간이나 걸린다. 때때로 청소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밤에 출발해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도착한다. 성전 봉사 후에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조상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아 오고 있다. “지난번 성전에 갔을 때는 조부님과 증조부님,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어요.”라고 마라카이보의 14세 소년인 구스타보 메디나가 말한다.

일부 가족 환경으로 인해 가족 인봉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저는 성전에서 인봉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년 전에 저는 우리 가족 중 여덟 명의 여자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어요. 전 미래의 제 남편에게 인봉되길 고대하고 있어요.”라고 아난겔리스가 말한다.

푸에르토 라 크루스의 15세인 잉그리드 로드리게스는 부모님에게 인봉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한다. “전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맘속으로 '우리는 영원히 인봉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잘 도와 드려야지' 라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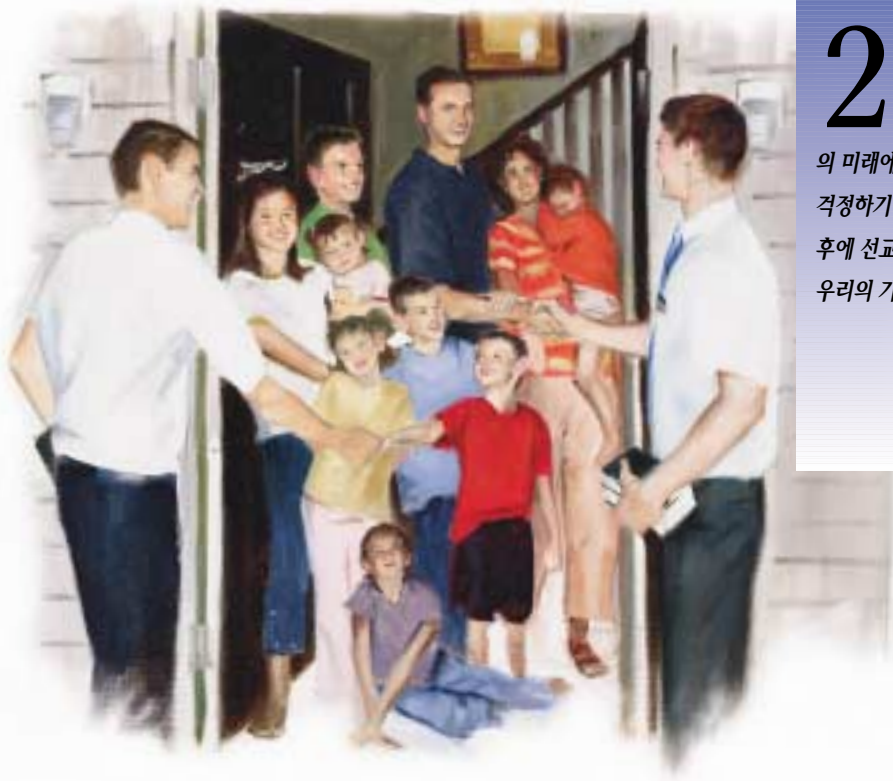
모우틴호 가족이 인봉된 후 느꼈던 것처럼
 파티마와 그녀의 가족도 그 순간을 떠올렸다.
 "우리는 성전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쳐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처럼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도울
 거예요."

간증을 함

"전 교회 회원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새 청녀 목걸이를
 한 루비가 말한다. "젊은 사람들로써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만약 제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가 친구들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은사지요." ■

마라카이보에서 증인으로 서
 있음. 왼쪽부터: 구스타보
 메디나, 호세 하비에르
 알라론, 글라디스 게레로,
 재클린 가르샤, 아난겔리스
 콜린다노 및 호수에 디아스.





22년 전 어느 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에 선교사 두 명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 왔다.

(나머지 세 명은 그들의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과 함께 나는 토론을 듣기 시작했고 교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그들의 믿음에 친숙하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우리는 교회에 가입하겠다는 현명한 결정을 했고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나는 내가 자녀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길 원한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례로, 내가 이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순결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으므로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또한 첫 결혼에서의 세 자녀들도 침례를 주어 세상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이제 여덟 명의 자녀들 모두가 교회에 속해 있다. 네 명은 선교사로 봉사했고 한 명은 나이가 많아 선교사로 가지 못했지만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로 봉사했다. 여섯 명 모두가 성전에서 결혼했다.

1999년 초에 우리는 남 플로리다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다. 대회 통역을 위해 이어폰을 전달하는 임무 지명을 수행한 뒤 나는 수천 명의 교회 회원이 앉아 있는 대회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속 홀의 뒤쪽에서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다른 방향을 보았고 그 곳에서 또 다른 아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정이 밀려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나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

나는 많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우리 가족은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예를 보았으므로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이십 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가진 4년 뒤에 이혼을 했다. 그러나 그 후 한 훌륭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세 자녀를 가진 나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아 주었다. 우리는 3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 왔다.

약 22년 전 어느 날, 나는 여덟 명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녀들도 나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거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의 사악함 속에 내버려질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집을 두드릴 때는 언제나 문을 열어 주었고 기꺼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책자를 받았으며 그들을 따라 예배당에 갔다. 그러나 평안을 느끼지 못했고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지 못했다.

몇 년 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두 젊은 선교사가 우리의 가정에 찾아 왔다.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들

없었다. 나는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던 그 끔찍한 날들을 기억했다. 나에겐 이제 더 이상의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이 있을 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돕고 기쁨과 행복을 얻는 올바른 길을 찾도록 해 주었다. ■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는 하이어리어 가든스 플로리다 스테이크 마이아미 레이크스스페인어 사용와의 회원이다.

지극히 작은 일

새년 밴더스플 왓슨

나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들어왔으며 우리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었다. 나는 많은 낯선 활동들과 부름들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서의 힘든 과도기를 보냈다. 대학 2학년 때 난 처음으로 방문 교사로 부름 받고 그 부름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의 동반자는

결혼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앙에 충실한 브레이 자매(가명 사용)로 나로서는 그녀에게 방문 날짜를 정하게 한다든지 방문 일정을 관리하며 자매님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쉬웠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한 자매가 있었다. 캐시는 저활동 회원으로 남자 친구와 동거하면서 첫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항상 슬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듯이 보였다.

어느 일요일, 지부장단이 우리에게 그 날 저녁의 선교 노변의 모임에 우리의 방문 교육 대상자 모두를 초대했는지 물었다. “그럼요”라고 대답하며 나는 “브레이 자매님이 캐시에게 전화할 거야.”라고 생각했다. 나는 예배당을 둘러보았다. 브레이 자매님은 일요일 지방에 가서서 안 계셨고 따라서 아무 곳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에서 돌아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난 “캐시에게 전화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나는 완강히

마지막으로 거절할 수 없는 영에 의해 나는 마지막에 전화를 걸었지만 캐시의 전화 자동 응답기가 받을 뿐이었다.

거절했다. 내가 전화를 해도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다시 한 번 강한 영의 속삭임이 있었다. “캐시에게 전화해라!” 나는 다시 거절했고, 마지막으로 거절할 수 없는 영에 의해 나는 마지막에 전화를 걸었지만 캐시의 전화 자동 응답기가 받을 뿐이었다. 나는 “거 봐, 잘 될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다. 나는 캐시와 그녀의 남자 친구인 월에게 저녁에 노변의 모임이 있으며, 거기서 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노변의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캐시와 월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들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내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다소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노변의 모임이 끝나기 10분 전에 나는 캐시와 월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선교사들이 조용히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나갔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맘속으로 말했다.

그 후 곧 성탄절 방학이 되어 나는 나의 원소속 와드에 참석했다. 한 달 후에 내가 학교로 돌아와 그 와드로 돌아왔을 때 교회 회원들 중 한 명이 흥분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그 날 저녁에 있을 침례식에 올 것인지를 물었다. “물론이죠. 그런데 누가 침례 받죠?”라고 내가 물었다. 그 자매님은 대답했다. “월이에요, 캐시의 남편되는 분 말이죠.” 남편이라고? 저는 최대한 빨리 캐시를 찾으러 갔다.

캐시와 월을 발견한 나는 그들의 결혼과 월의 침례를 축하해 주었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물었다. 캐시가 대답했다. “자매님이 저희들을 초대했던 노변의 모임 기억하죠? 우리는 그 모임에 늦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희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주었어요. 월은 그 비디오를 너무 맘에 들어 했고 토론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오늘 월이 침례를 받아요.” 나는 겸손해졌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졸업 후 6년 뒤, 나는 다시 내가 다니던 대학교의 소속 와드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수많은 친근한 얼굴들을 다시 보고 옛 친구들을 나의 남편과 두 자녀에게 소개할 일에 흥분되어 있었다.

내가 휴게실을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안면이 있는, 그러나 다소 달라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았다. “혹시 저를 아세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럼요, 저는 캐시예요. 자매님이 제 방문 교사였죠. 월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캐시는 그녀 왼쪽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고 복도에 있는 두 명의 어린이를 불렀다. “이 애들이 저희 두 아이들이에요.” 캐시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자신감 있어 보였다. 캐시는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성전에 가 보았어요?” 나는 이렇게 물었다. “어떤 성전이요?” 캐시는 웃으며 물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나부? 우리는 다 갔다 왔어요.”

그 만남은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엘마서 37:6) 라는 성구같이, 비록 전화 한 통화와 같은 작은 일도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

새년 밴더스플 왓슨은 일리노이 버팔로 그로브 스테이크 레이크 빌라 제2와드의 회원이다.

스키너 형제와 함께한 가정 복음 교육

케빈 프로파스코

나는 십대 때 침례를 받았으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3년 동안의 군생활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대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드러운면서도 끈질긴 주님의 영의 속삭임이 나를 소속 와드의 활동 회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착실하게 그것에 따랐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장로 정원회 형제들은 나를 가까이 환영했고, 감독단 제2보좌인 버니스 스키너 형제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 부름을 주었다. 스키너 형제의 사랑스런 가르침 아래 간중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지명 받은 몇 가족들은 뼈대한 재정, 어린 자녀들, 고질적인 병, 외로움,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복음 생활의 평안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가족들 가운데 헤즐과 존 피터슨이 유달리 특별했다. 그들의 아들 마이크는 나의 고등학교 친구로 나의 개종에 가장 도움을 준 청년들 중 한 명이었다. 어린 구도자였던 나는 그들의 가정에서 선교사 토론을 들었고, 지금은 내가 그들의 가정 복음 교사로 가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는 각 가정에서 스키너 형제는 기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사랑으로 봉사했다. 그의 위안과 축복과 관심과

조언과 행동은 구세주의 사랑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스키너 형제와의 가정 복음 교육은 부담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영광이었다.

신권 승진이 있는 후 일년이 지나지 않아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스키너 형제와 우리의 가정 복음 교육 대상 가족들과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대학과 법과 대학원을 마친 후, 나는 여러 나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다니면서 2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러나 나는 스키너 형제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여러 와드와 지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의 동정심과 헌신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했다.

공군에서 퇴역한 후, 나는 법률 사무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와드는 전혀 다른 경계로 재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헤이즐 피터슨 자매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이 암으로 죽은 이래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나 6개월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내 법률 사무실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터슨 자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집과 가까운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갈 때 그 느낌을 무시하려 애쓰면서 운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다음 출구에 도착할 즈음에 나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피터슨 자매님 집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부드럽게 거의 25년 전의 활동으로 나를 돌려 놓았던 것처럼 그 영은 이제 내가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연로한 자매님을 방문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다.

피터슨 자매의 집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그녀가 외출 중일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 문을 두드렸고 몇 분 더 기다렸다. 마침내 문 위쪽 창문이 덜컥거리며 미끄러지듯 열렸다. 피터슨 자매가 아래 쪽의 나를 흘깃 내려다보았다. 세월때문에 그녀의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백발이 되어 있었다. 작고 아위어 보였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힘들게 숨을 쉬면서도 나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오, 케빈, 와

주어서 정말 반가워요.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요. 신권 축복이 필요해요. 기다려 주어서 고마워요. 들어와요.” 창문에서 돌아서기 전에 그녀는 “난 형제님을 버니스라 생각했어요.”라고 덧붙였다.

버니스란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난 물었다. “스키너 형제 말씀이에요? 그가 아직 이 부근에 살고 있나요?”

“아니, 그는 65킬로미터 떨어진 북쪽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이 이 근처예요. 내게 그의 전화 번호가 있어서 20여 분 전에 전화로 축복을 부탁했어요. 곧 여기

오게 되어 있죠.”

차 한 대가 들어왔고, 스키너 형제가 차에서 내렸다. 흰 머리가 많아졌지만 유쾌한 발걸음과 친절한 미소는 예전과 같았다. 우리는 악수했고, 우리의 재회는 20년이란 세월을 잊게 했다. 우리는 피터슨 자매의 낯익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 곳은 오랜 세월 전에 스키너 형제에게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던 곳이었다. 내가 피터슨 자매의 머리에 성별된 기름을 붓고 스키너 형제가 축복을 했다. 우리는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친히 봉사하라는 즉석 부름을 받은 동반자로 함께 있었다. ■

케빈 프로파스코는 유타 웨스트 시라쿠스 스테이크 글렌 이글 와드의 회원이다.

우 리는
악수했고,
우리의

재회는 20년이란 세월을
잊게 했다. 우리는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친히]
봉사하라는 즉석 부름을
받은 동반자로 함께
있었다.



집사 정원회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 집사 정원회에 대한 감리 감독단의 말씀.

왜 교회는 12세 및 13세 청남들을 집사 정원회에 속하게 하는가?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위쪽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신권 열쇠의 효과적인 사용입니다. 신권 열쇠는 삶의 지침과 축복을 주는 것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합니다.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 회원들과 그들의 봉사를 받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그 열쇠들을 사용합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위쪽 왼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2003년 6월에 열린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정원회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과 형제애와 봉사 조직입니다. (“스테이크 행정”, 6쪽 참조; 또한 스티븐 엘 리차즈,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18쪽 참조) 정원회는 청남들을



통합시켜 그러한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원회에서의 역점을 교실에 두는 반면 형제애나 봉사 부분에는

그다지 많이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버튼 감독: 교실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곳은 “이론”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이론을 적용하는 “실험실”은 교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청남들이 그들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57, 59, 60 참조)

집사 정원회 고문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위쪽 오른쪽): 우리가 형제애를 넓히고 정원회의 여러 부분들에 봉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정원회 회장이 그의 고유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 정원회 고문에게 정원회 회장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버튼 감독: 고문은 청남들의 뒤에서 “그림자 지도자”가 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청남들에게 어떻게든 고문 없이 효율적인 정원회 회장이 되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정원회는 현 고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멀린 감독: 제 판단으로는 우리 집사 정원회가 종종 고문들에 의해 정원회가 할 일들을 너무 간단히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들이 신권 직분에 성임되어 있는





청남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큰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사들을 신권에 대한 일종의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 재미를 줄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로 간주하는 한 우리의 청남들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 할 것입니다.

에즐리 감독: 만약 교실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회원들만이 아닌 모든 정원회 회원들을 위한 충분한 의자가 있고, 각 의자 뒤에 정원회 회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집사 정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어 있는 의자가 정원회 회장단의 눈에 잘 띄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회 회장단에게 활기를 주고 정원회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필요를 느끼도록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됩니다.

성인 지도자들과 고문들은 집사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소 일상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을 때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에즐리 감독: 젊은이들은 그 나이에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 경험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부친이 저활동 회원에 대한 신권 축복을 목격하도록 저를 데리고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영을 느낀 것 외에 달리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친은 의식을 설명해 주셨고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맥멀린 감독: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성찬 전달은 판에 박힌 일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한 집사가 영감에 찬 방법으로 빵[떡]과 물의 상징이 개인적으로 자신과 그 상징물을 입에 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배운다면 그 때 성찬은 모든 안식일마다 성스러운 경험이 됩니다.(니파이삼서 18:5~6;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그러나 제가 전형적으로 우리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이 성찬을 전달하고 있는 좌석 줄과 단상의 누구에게 먼저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성찬의 특별한

정원회는 반과 형제애와 봉사 조직입니다. 정원회는 청남들을 단합시켜 그러한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성격을 잃게 될 정도로 성찬 전달은 판에 박힌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문들이 미리 행정적인 세부 사항을 잘 가르친다면 그런 세세한 것들로 주의가 산만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정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즐리 감독: 집사들의 가장 큰 도전은 소속감을 가지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집사일 때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곳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집단은 언제나 그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환경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주고 올바른 친구를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소속감과 안전감과 자신들이 중요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정원회의 형제애 부분입니다.

버튼 감독: 우리는 아론 신권이 실제 의미로는 예비 신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고문들과 감독들이 이것이 삶과 멜기세덱 신권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우리 청남들은 보다 높은 신권[대신권의] 구원의 의식을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



집사가 됨



로리 리브시

조지 본드는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손꼽아 기다려 왔던 아론 신권을 받는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되었다. “저는 성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집사가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라고 조지는 말한다.

드디어 일요일이 왔고 조지는 일찍 일어나 아홉 시에 있는 플로리다 잭슨빌 동 스테이크 알링턴 와드의 성찬식을 위해 준비했다.

“조지는 여덟 시에 교회에 갈 준비를 마치고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댔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 갈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조지의 아버지인 빌이 회상한다. “그 날 성찬식에서

저의 아들이 처음으로 성찬 전달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이제 신권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조지는 본드 가족에 의해 2002년 4월 29일에 입양되었다.

본드 형제는 1991년에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권 소유자로서의 젊은 시절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성장했다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본드 형제는 말한다. “지금 조지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얻는 지식들을 저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조지의 어머니인 프랜은 이렇게 말한다. “남편은 조지가 알아야 할 것들, 예를 들면 교회에 입고 가야 할 복장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조지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모범을 따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지는 정말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해요.”

와드 집사 신권 정원회 회장단 제1보좌인 조지는 복음대로



생활하며 신권 소유자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조지는 먼저 금식 헌금이 무엇이며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시작했다. “금식 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도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람들이 왜 헌금하며 왜 제가 매달 금식 헌금을 모으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조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학습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지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라고 본드 형제는 덧붙였다. “저희들은 조지가 저희 아들이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

로리 리브시는 플로리다 잭슨빌 동 스테이크 만다린 제1와드의 회원이다.



2005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크고 놀라운 일”

(니파이일서 14:7)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이 2005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대해 토의했다.

18 20년 봄, 열네 살 된 어린 소년의 진지한 기도로 “크고 놀라운 일”(니파이일서 14:7)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약 2000년 동안 지상에서 거두어졌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몰몬경과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인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신권의 권세가 다시 이 지상에 존재합니다. 신권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 주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지상에 사는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은 바로 이러한 확신, 곧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신성을 가지셨으며, 이 시대에 그분들의 사업이 회복되었고, 뒤이어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토대가 되는 영광스러운 계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조용히 갖는 그러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간증”,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1쪽) 여러분이 구세주의 비이기적인 봉사의 모범을 따르고 의로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간증은 강해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소속감과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업의 여러 부분에 참여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구세주께서 그분의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오늘날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과 행복의 계획을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크고 놀라운 일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본부 청남 회장단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장로(중앙)
딘 알 버게스 장로(좌)
마이클 에이 네이더 장로(우)

본부 청년 회장단



수잔 더블류 테너 자매(중앙)
줄리 비 백 자매(좌)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우)

제가요? 축복을 주라고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브래드 라슨

만약 그녀가 형제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면 해 주시겠어요?”라고 전화로 제이콥이 물었다. 나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인 제이콥은 우리의 가정 복음 교육 대상중 어떤 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축복할 때 뭐라고 기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겨우 열여덟 살이었고, 장로가 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대학교 때문에 멀리 이사를 한 상태였다. 나는 뿔기세텍 신권을 받기 위해 계속 준비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망설이며, 감정을 겨우 억누른 채, 마지못해 “네”라고 대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 나는 말끝이 흐려졌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버린 것이다.

“ 좋습니다!”라며 성원하는 그의 목소리는 열의에 차 있었다. “몇 분 내로 갈게요.”라며 제이콥이 말했다.

지하 아파트에서 나는 제이콥에게 축복을 할 수 없다고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전화기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 분은 축복을 해야 할 때면 언제나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먼저 기도를 하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고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기도하러 가셨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홀로,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곧 축복을 해야 하는데,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정신을 맑게 해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영을 통해 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섰을 때, 내가 합당하며 성신이 내게 필요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 주시리라는 평안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몇 분 후 제이콥과 나는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했던 젊은 자매의 집에 앉아 있었다. 우리 셋은 잠시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으며, 신권 축복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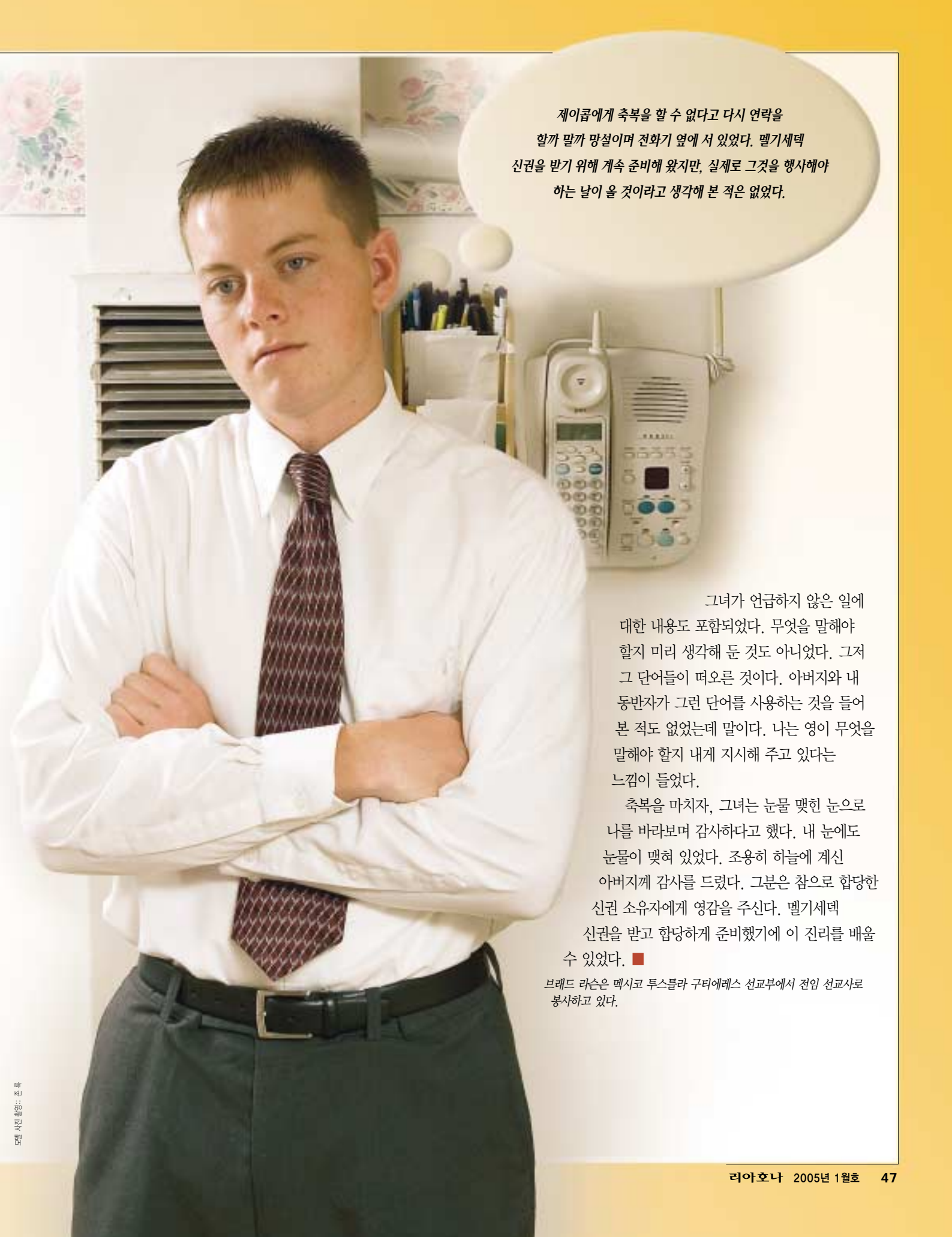
“누가 축복을 하면 좋을까요?” 제이콥이 물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축복을 해 주시겠어요?”라고 물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으며 말끝을 흐리지도 않았다.

우리는 부엌의 흰 금속 식탁 의자를 방 중앙으로 가지고 왔다.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조용히 다시 한 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제이콥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고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 “우리는 뿔기세텍 신권의 권능으로, 그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대를 축복하노라 ...”

이 말을 마치자마자, 다음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내 마음에 떠오른 몇몇 단어들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이콥에게 축복을 할 수 없다고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전화기 옆에 서 있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계속 준비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가 언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단어들만 떠오른 것이다. 아버지와 내
동반자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
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영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게 지시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축복을 마치자, 그녀는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했다.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조용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그분은 참으로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게 영감을 주신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합당하게 준비했기에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었다. ■

브래드 라슨은 멕시코 투스틀라 구티에레스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와 주는 책

저는 *리아호나*, 특히 친구들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책은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와 줍니다.

*사라 페르난데스 아라조 데 소자, 10세,
브라질 조양 페소아 스테이크 탐바우 와드*

방문 교육을 통해 얻은 큰 신앙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계시를 받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음 지식을 얻게 도와 주고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를 전해 주는 *리아호나*에 감사드립니다.

매월마다 나오는 방문 교육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자매들에게 생각을 나누도록 부탁하면, 그들의 간증은 저의 신앙을 키워 줍니다. 이런 영감에 찬 메시지는 모든 자매들의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왕 캐웅 치 풍,
홍콩 콜론 동스테인크 쉐 톱 와드*

우리 삶의 거울

우리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나누는, 대관장단 메시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각각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배울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에 비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파울 케사다 리바스,
에콰도르 과야킬 가르시아 모레노 스테이크
칼리쿠치마 와드*

주님의 타이밍

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계획을 한 번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에 실린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주님의 타이밍”이란 글은 저의 계획표 옆에 저의 것보다 더욱 중요한, 주님의 계획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리아호나*를 구독함으로써, 주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소아스 응킨도 응킨도,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선교부
카난가 제1지부*



지도력(리더십)에 대한 글을 보내 주세요

훌륭한 지도력(리더십)은 경험담과 모범을 통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영감 받은 지도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축복 받은 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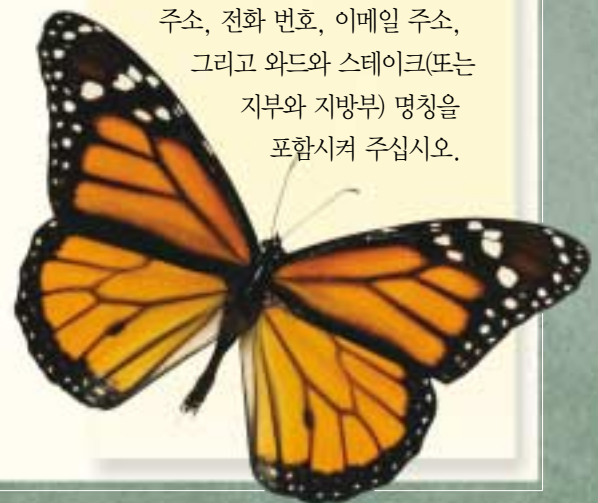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담을 *리아호나*의 다른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이메일 주소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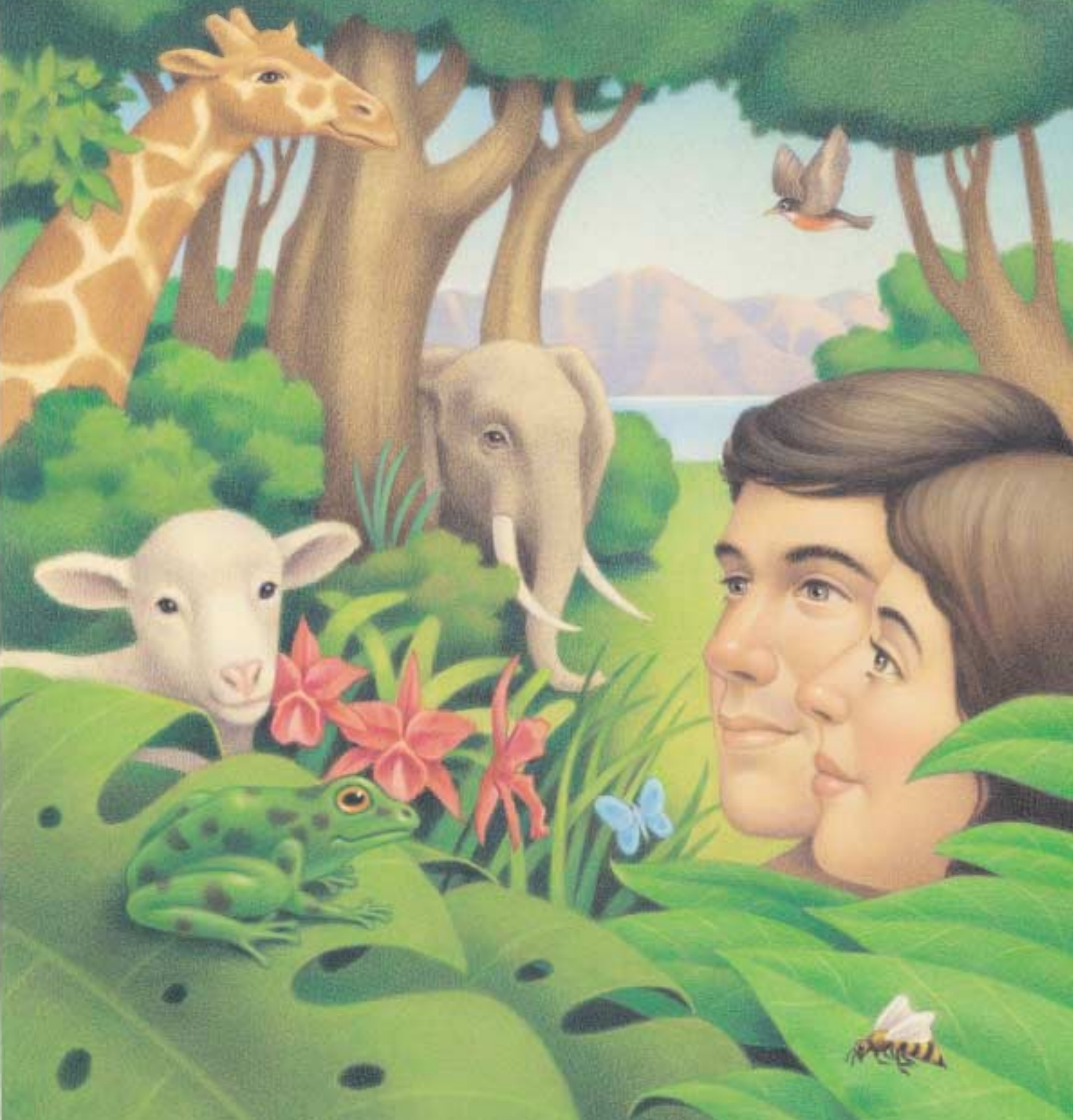
우편 주소: Leadership Experiences,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친구들



침례를 통해 거듭남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복음의
첫 번째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구 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남자와
여자가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필멸의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자에 의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시작되며,
확인 의식을 받을 때 완성됩니다.

몇 년 전에 앨버트 피터스는 자신의 동반자와
함께 거듭난 어떤 남자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사모아의 사시나
마을에 있는 아티아티라는 사람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면도도 하지 않아 보기
흉한 불구의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토론 내용을
전하고 간증을 한 뒤 떠났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아티아티의 상태에 관해
의논했습니다. 그는 22년 전 소아마비를 앓아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 완전히 장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날 그들이 그들의 새로운 친구를

방문했을 때 그는 면도도 말끔히 했고, 그의
침구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지난
20년 동안 누군가 찾아와서 제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주 동안 두 선교사들은 진실하고 지적인 이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을 얻어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 자기와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침례탕은
13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선교사들은 그를 차에 태우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피터스 장로와 동반자가
아티아티를 안고 침례탕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티아티는 “저를 내려놓아 주세요.
이것은 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 받는

일이 누군가에 의해 옮겨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그는 일어섰습니다. 20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선 것입니다. 아티아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선교사가 그의
손을 잡아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피터스 장로에게 침례 받던 날 아침 걸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면 내 수족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떨리는
걸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리아호나,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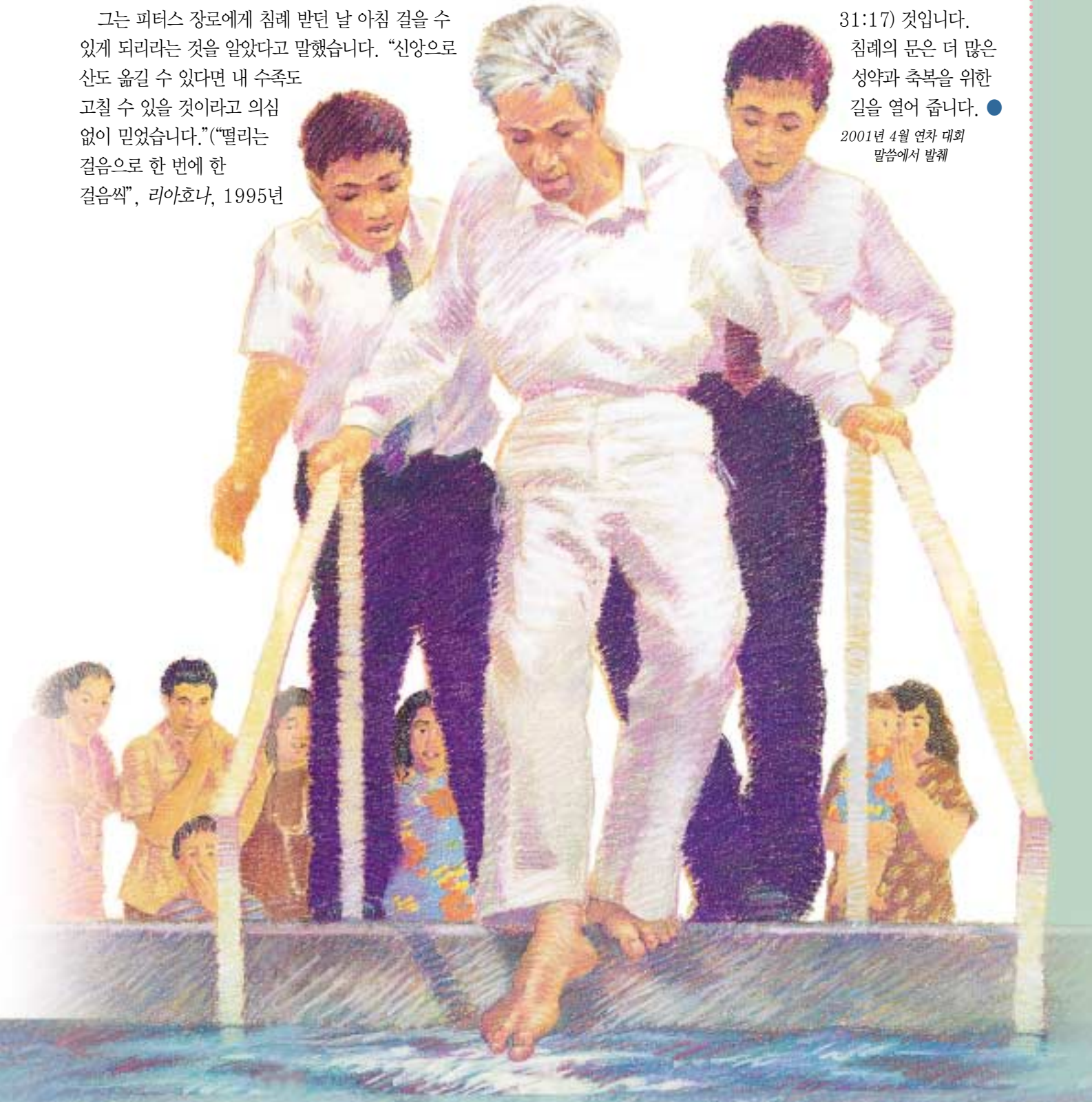
6월호, 28~31쪽 참조) 우리는 아티아티가 진실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티아티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몸에 지니게 됩니다.
니파이가 말한 대로 침례는 문이며, “그 후에 불과 성신으로 죄
사함을 얻는”(니파이이서

31:17) 것입니다.

침례의 문은 더 많은
성약과 축복을 위한
길을 열어 줍니다. ●

2001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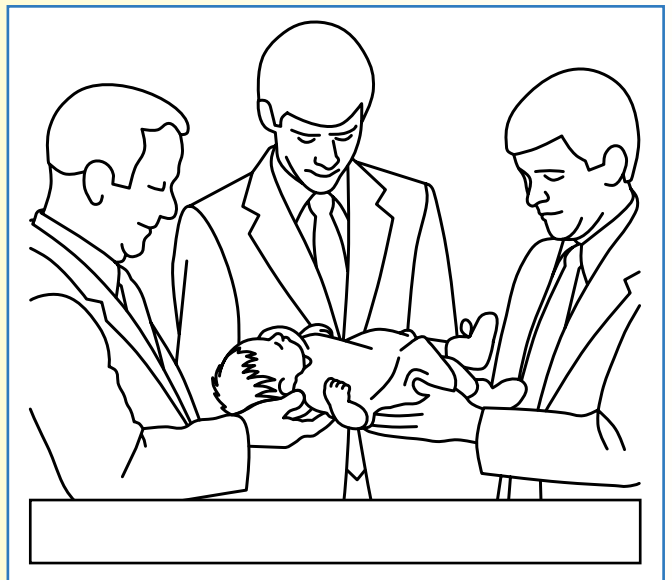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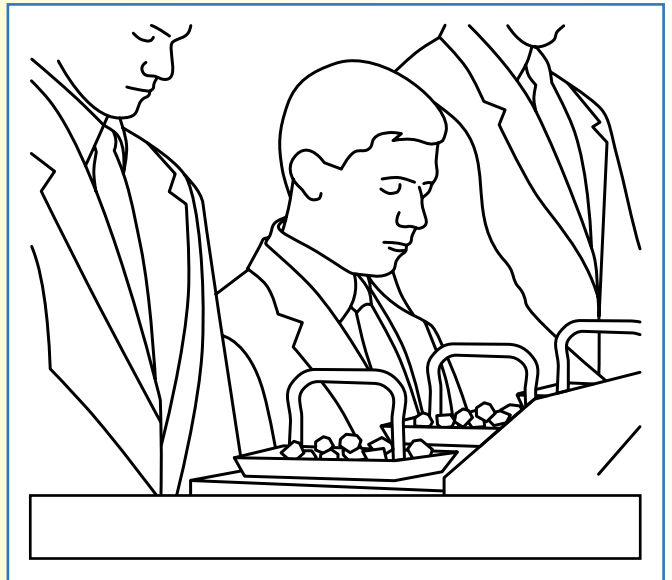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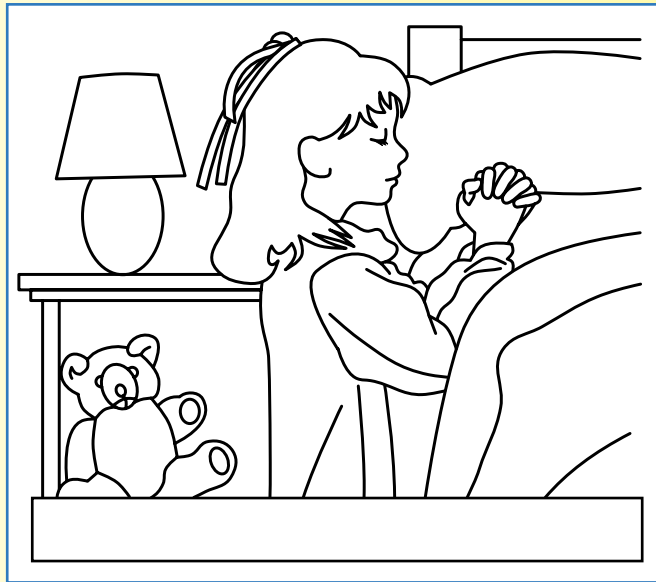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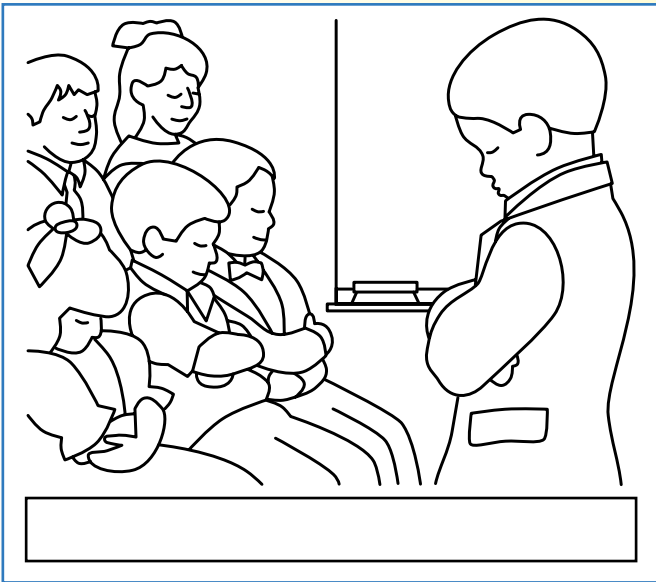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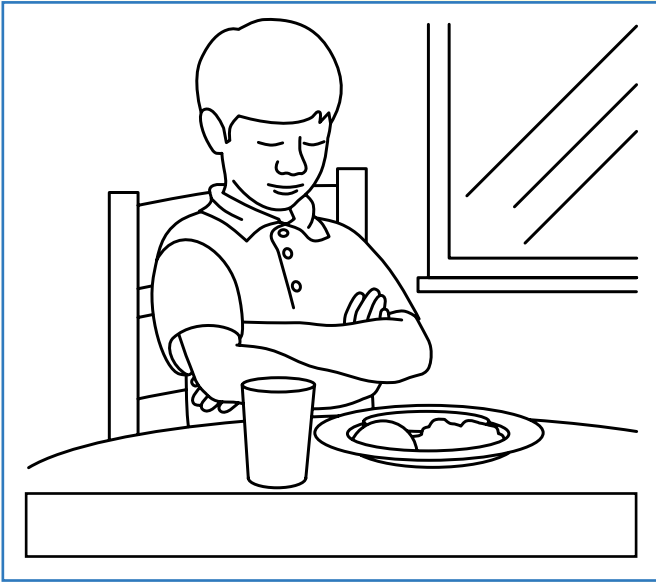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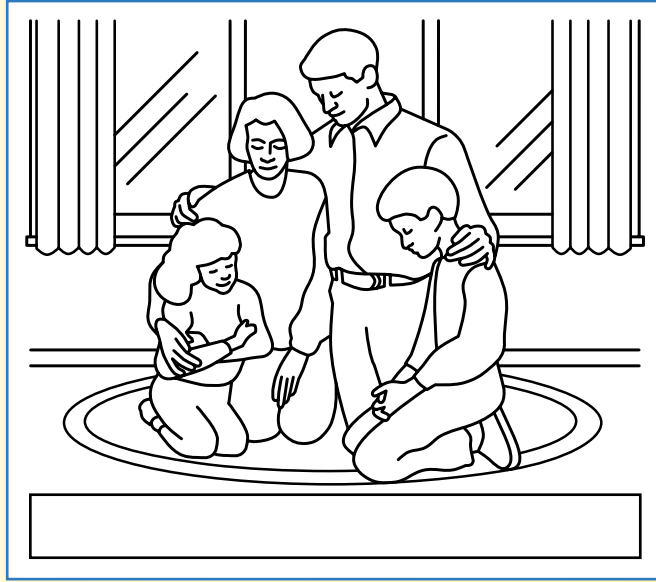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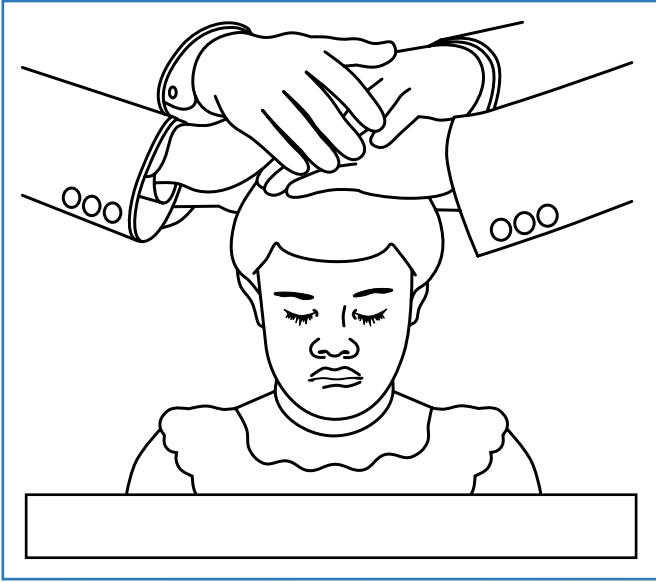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들 중의 하나입니다. 위대하신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때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색칠할 그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 그림에 색칠을 하면서 그림 밑에 그 기도의 종류를 써 봅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은 성찬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런 후, 누가 그런 기도를 하는지,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해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상기시켜 주도록 색칠한 그림들을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놓으십시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부모님의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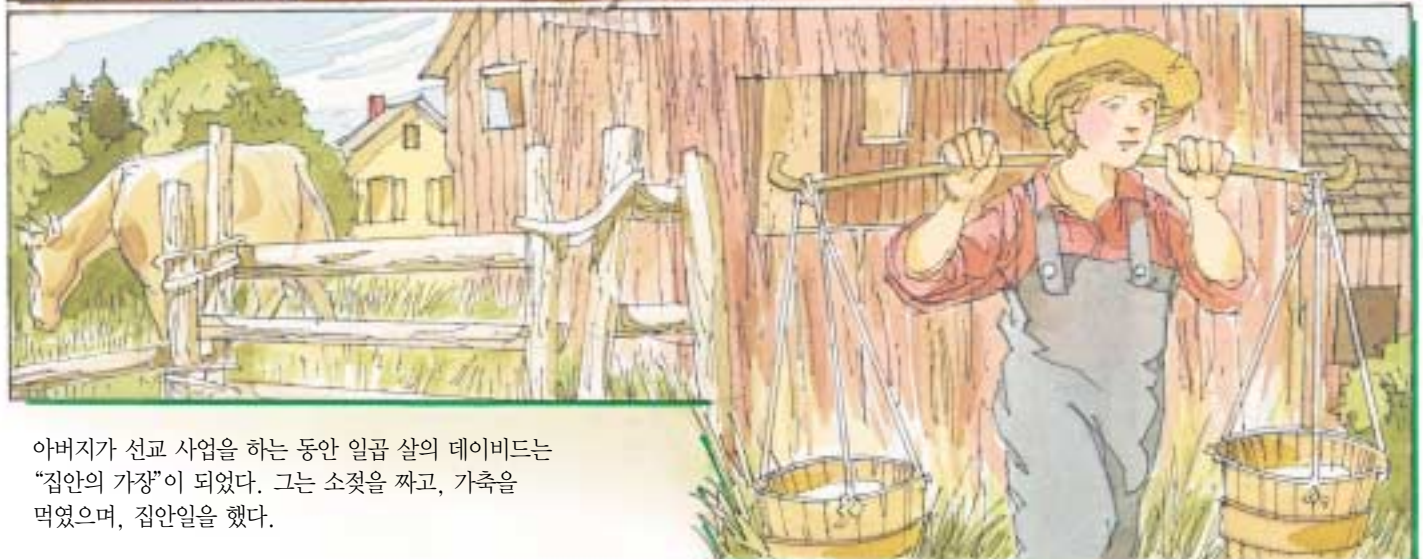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의 두 누나는 병에 걸려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가렛과
엘렌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꾸나.

그들이 이런 신앙의 시련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곳인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지금 선교사로 나갈 순 없소,
당신을 도와 줄 딸들도 없고,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거요. 부름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야 겠소.

지금 당신이 선교 사업을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전
그분을 믿어요. 데이비드와 전 아무일
없이 잘 지낼 거예요.



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일곱 살의 데이비드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는 소젖을 짜고, 가축을
먹였으며, 집안일을 했다.

데이비드의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온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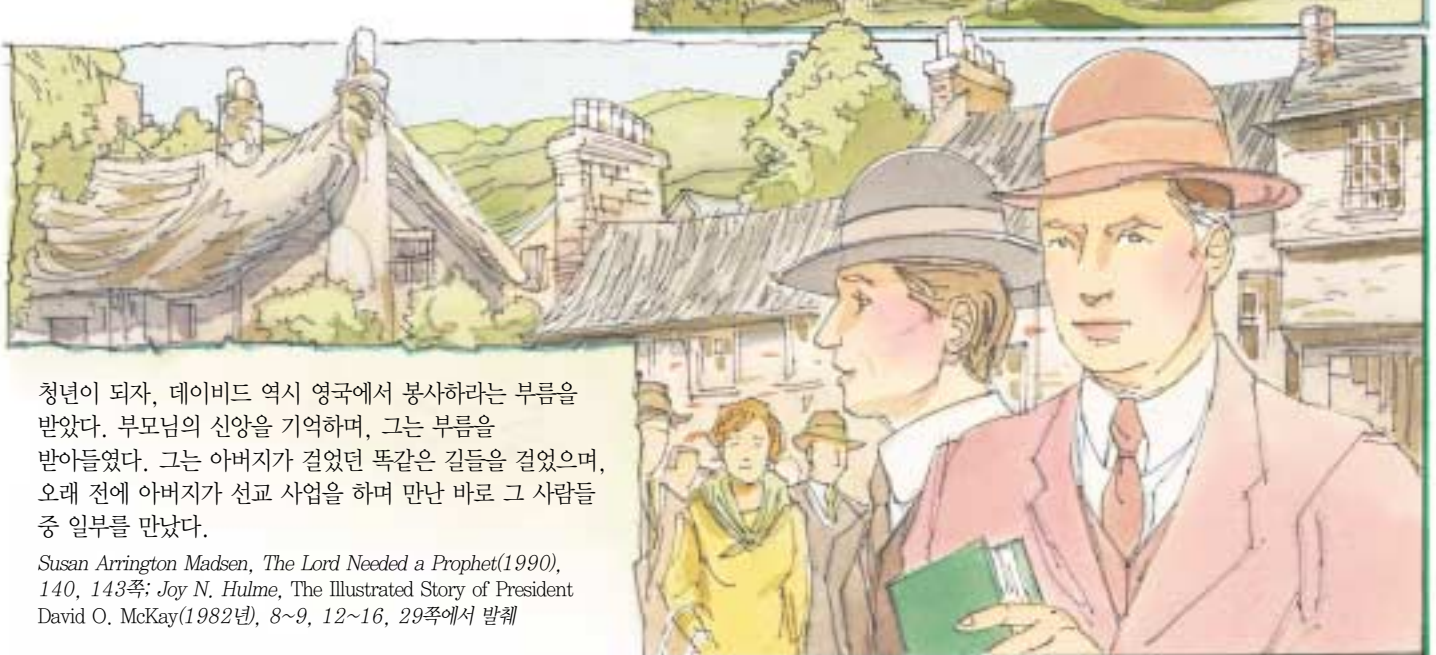
엄마, 아기가 너무 예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 어머니가 이룩한
것들을 좀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셨어요.



2년 뒤, 집에 돌아온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가족과 새로 태어난 딸을 만나 큰 기쁨에 넘쳤다. 그는 집에 새로 증축된 건물을 보고 매우 놀랐다.



청년이 되자, 데이비드 역시 영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며, 그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똑같은 길들을 걸었으며, 오래 전에 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하며 만난 바로 그 사람들 중 일부를 만났다.

Susan Arrington Madsen, *The Lord Needed a Prophet*(1990), 140, 143쪽; Joy N. Hulme, *The Illustrated Story of President David O. McKay*(1982년), 8~9, 12~16, 29쪽에서 발췌

행복의 계획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1:39)

마가렛 리퍼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성장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여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을 잠시 떠나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구를 창조하시고, 선과 악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왔고 육체를 얻었으며 신앙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기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의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옳은 일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죄를 극복하셨으므로,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을 받으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이 영생이 바로 행복의 계획의 중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소책자

친구들 9쪽을 떼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굵은 선을 따라 오린다. 두 번째 스트립을 첫 번째 스트립 끝 부분에 펼친다. 점선을 따라 앞뒤로 접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초등학교를 일곱 그룹으로 나누고 창조의 일곱 날을 설명하는 성구를 각 그룹에 나누어 준다. (창세기 1:3~2:3; 모세서 2:3~3:3) 각 그룹에게 창조의 각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 그런 후, 그림을 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구를 암송하게 한다. 첫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순서대로 진행한다. 지구를 의미하는 커다란 원에 어린이들의 그림을 붙이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경건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2. 신앙개조 제3조를 칠판에 쓰되 중간 중간에 다른 단어들을 많이 끼워 넣는다.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읽어 주고, 어린이들은 불필요한 단어들을 지운다. 신앙개조를 여러 번 함께 읽는다.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단어씩 계속 지우되, 어린이들이 신앙개조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속죄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1)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타락과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셨다.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2)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영적 죽음을 극복하셨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받으려면 복음의 법과 의식들에 순종해야 한다. 해의 왕국을 의미하는 태양을 그린다.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퍼즐을 만든다. 각 조각에 계명들(십일조, 지혜의 말씀, 용서 등)과 의식들(침례, 성찬)을 가르치는 성구를 적는다. 그룹 수만큼 퍼즐을 잘라 나누어 준다. 그룹들이 성구를 찾고, 그 법이나 의식에 대해 설명한 후, 퍼즐에 자신들의 조각을 덧붙이도록 한다. ●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

(모세서 1:39 참조)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서 3:22~26 참조)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모세서 2:1~3:3 참조)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모세서 4:6~5:1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타락을 극복하셨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서 3:27~28)



한 가족에게로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입니다. (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4 단락, 리이후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렐머서 11:42~4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해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76:50~70 참조)



물빛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기적과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여 주리라.”(교리와 성약 35:8)

보 피더슨
실화

“늘 밤에 아빠가 오시나요?”
벤자민이 물었다. 아빠는 덴마크에 있는 그들의 집 근처 바다에서 선원으로 일하셨다.

“아니, 아빠는 나흘은 지나야 오실 거야.”
아빠는 집에 오면 벤자민과 같이 축구를 하기로 약속하셨었다. 벤자민은 아빠가 보고 싶었다.

벤자민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빠가 집에 무사히 오실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다.

벤자민의 아빠는 배 위에서 차가운 비를 맞으며 저녁 식사 전에 일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피곤함과 추위를 느끼며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배가 요동쳤다.

물건들이 갑판 위로 와르르 쏟아지고 선원들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선장이 어둠 속을 자세히 보니 갑판 위에 있던 벤자민의 아빠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물에 빠졌소!”라고 선장이 소리쳤다.

그 날 저녁 벤자민은 엄마가 싱크대에서 저녁 식사를 한 그릇들을 닦는 모습을 보았다.

그릇을 닦으면서 엄마는 창 밖 정원을 내다보셨다. 세찬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는 것을 보고 벤자민도 걱정이 되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아빠가 괜찮으실까?

벤자민의 아빠는 배에서 울리는 경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강한 파도에 떠밀려 배에서 점점 멀어지자, 그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선원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구명 조끼를 던졌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벤자민의 아빠를 볼 수

벤자민은 “하나님 아버지, 부디 아빠가 엄마와 제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없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머리를 물 밖으로 내 놓으려고 애썼다. 벤자민의 아빠는 구멍 조끼에 장착되어 있는 손전등을 발견하고, 선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배쪽으로 전등을 비추었다. 그러나 손전등은 작동되지 않았다.

갑판 위에서는 선장이 무선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곧, 헬리콥터가 바다를 정찰하며 거대한 파도 위로 조명을 비추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 조종사가 선장에게 무선을 보냈다. 선장은 친구가 맞게 될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 하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조종사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헬리콥터의 연료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었으나 자신이 실종된 선원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벤자민의 아빠는 점점 더 추위를 느꼈다. 그는 이가 덜덜 떨려 오자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망가진 손전등을 꼭 쥐었다.

집에서는 벤자민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침대 곁에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벤자민이 “하나님 아버지, 부디 아빠가 엄마와 제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

벤자민의 아빠는 낮게 비행하는 헬리콥터를 보았다. 그는 팔을 흔들려고 했지만 너무 지치고 추워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때, 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 “손전등을 켜라.”

“하지만 이건 작동이 안 되는 걸.” 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불을 켜라.”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그는

뻗뻗해진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이 손전등은 전구가 나갔거나 건전지가 없어.”

헬리콥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거의 머리 바로 위로 다가왔을 때, 벤자민의 아빠는 전등을 하늘로 향한 채 스위치를 켜다.

바로 그 때, 조종사는 헬리콥터 아래서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찾았어요!” 그는 무선을 치며 외쳤다. 선원들은 갑판 위로 올라와 환호했다. 곧 벤자민의 아빠는 따뜻하고 안전한 헬리콥터 안으로 끌어 올려졌다. 담요에 둘러싸인 벤자민의 아빠는 엔진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엔진이 마치 “집에 있는 벤자민에게로, 벤자민에게로!”라고 노래하는 것 같았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구급차가 와 벤자민의 아빠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헬리콥터 조종사는 벤자민의 아빠가 기대고 있었던 곳으로 다시 걸어갔다. 바닥에는 손전등이 놓여 있었다. 그는 궁금한 마음에 손전등을 집어 들어 뚜껑을 열어 보았다. 두개의 녹슬고 오래된 건전지가 떨어졌다.

“이 건전지들로는 작동이 안 될 텐데. 하지만 바다에서 본 불빛이 이 손전등 불빛이 아니라면 내가 본 건 뭐지?”

“하나님께서 이 선원을 돌보아 주신 게 틀림없군.” 그는



“기적은-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결과로 일어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Miracles”, Ensign, 2001년 6월호, 9쪽.

옆에서 있던 동료 조종사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벤자민의 어머니는 갑자기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걱정스러웠던 느낌은 사라졌다.

어머니는 벤자민의 방문을 살짝 열고, 벤자민이 곤히 자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벤자민은 아빠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빠는 곧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

보 피터슨은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앨러드 워드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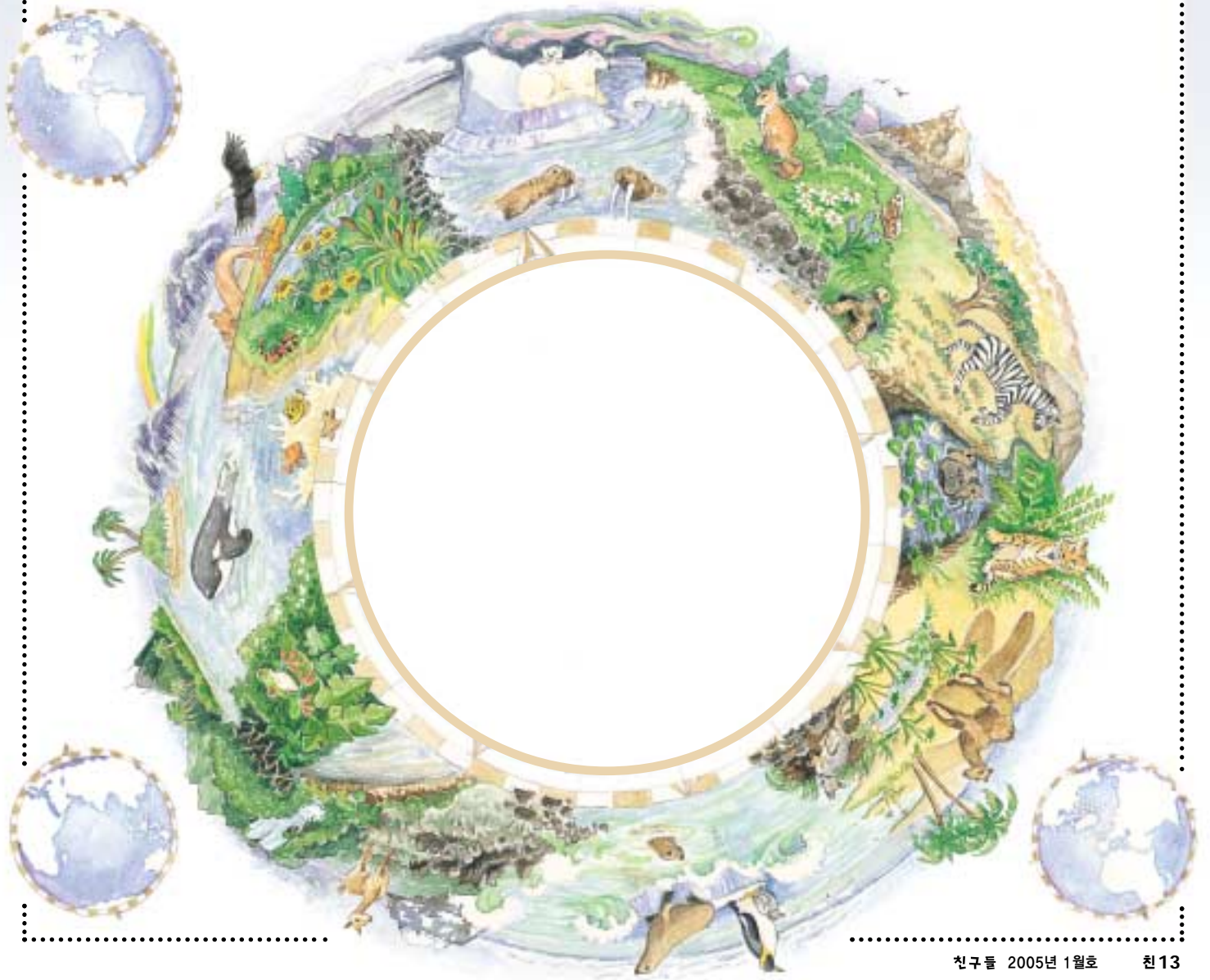


아름다운 세상

계획의 일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서, 그분은 우리가 육체를 얻고, 그분에게로 되돌아가기에 합당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장소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다른 곳들을 보여 주는 작은 원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보여 주는 원을 찾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별표로 표시를 하세요. 그런 후, 더 큰 원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일을 기억합니다. ●



하이로 엘리 호콥

과테말라 코말라파



달리아 호콥과
비르나 로드리게스

이 심체의 마야 유적지는 무성하게
우거진 푸른 관목들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과테말라 코말라파에
사는 열한 살의 하이로 엘리는 유적지를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역사와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래 전에 숙련된 카치켈의
석공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들을 건축했다.
현재 하이로는 신앙의 토대를 쌓고 복음 안에서
선행을 쌓기 위해 그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집사로 성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이로는 고대 이심체 유적지(위)를 방문하고 가족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물문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과테말라 치말테난고 스테이크 코말라파 지부의 회원인 하이로는 각치켈 언어를 사용하는 산악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하이로는 마음속으로 자주 날짜를 헤아려 본다. 그는 이제 곧 열두 살이 되며, 신권을 받고 집사 정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이로의 좋은 친구이자 사촌인 열여섯 살의 켄사르 사무엘은 하이로의 가족과 함께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 하이로는 지부에서 아론 신권반을 가르치는 전임 선교사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활동 회원이자 재미있는 놀이를 좋아하는 하이로는 그의 지부에 있는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이로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만, 찬송가 부르고와 예언자의 생애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한다.

6학년인 하이로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며, 특히 3년 동안 연습해 온 멀리 뛰기를 좋아한다. 학교에서 열린 경기에서 그는 경보와 멀리 뛰기

하이로는 누나들인
밀드레드와 멜리사,
달리(오른쪽),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과(아래)과
재미있게 지낸다.

두 종목 모두에서 2등을 차지했다. 그는
축구하는 것도 좋아한다.

하이로는 물론경과 다른 교회 책들을
읽으면서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

“하이로는 똑똑한 아이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한다면 자라서 충실한 회원이자 강한
선교사가 될 겁니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한다.

하이로의 누나인 스무 살의 멜리사는
하이로가 매주 일요일이면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하고 사촌인 세사르와 걸어서 교회에 가는
모습에 감탄하게 된다고 말한다.



하이로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그의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삶의 토대가 되어 가고 있다. ●

달리아 호콥은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스테이크 코말라파 지부의
회원이다. 비르나 로드리게스는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마리스칼
스테이크 파노라마 와드의 회원이다.

